■ 민족문화연구 제84호(2019.08.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223-262.
http://doi.org/10.17948/kcs.2019..84.223

고문헌에 나타난 천문 현상에 따른 풍흉과 길흉 예측
—해, 달, 별을 통한 예측과 민속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김태우(金泰佑)*

목 차

1. 서론
2. 농서와 유서류에 나타난 천문 예측
3. 세시기와 개인 문집에 나타난 천문 예측
4. 천문 예측의 비교와 민속과의 관련성
5.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세시기, 개인 문집, 농서, 유서류 등 여러 문헌에서 해와 달, 별 등의 천문 현상을 보고 풍흉이나 길흉을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중에 해와 달, 별과 관련된 천문 예측의 대략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를 보고 예측하는 경우 주로 비와 바람에 대한 것이다. 햇무리가 지면 비가 오고 해에 귀가 생기면 맑거나 흐리게 된다. 해의 남쪽에 귀가 생기면 맑고 북쪽에 귀가 생기면 비가 오며 두 개가 생기면 비가 그친다. 햇무리의 색도 대체로 누르면 좋고 다른 색이면 좋지 않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달을 보고 예측하는 경우, 달빛이 붉으면 가뭄이 들고 희면 비가 많이 와

* 신한대 교양교육원 조교수.

서 수해가 있다고 했다. 반면, 누런빛이나 짙은 황색이면 풍년이 든다고 보았다. 달무리가 있으면 바람이 분다고 했다.

다음으로, 별을 보고 예측하는 경우, 묘성(좀생이별) 보기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혼재되어 있다. 즉, 달과 묘성의 거리가 가깝고 묘성이 달보다 뒤에 있으면 풍년으로 보았고 반대로 거리가 멀고 묘성이 달을 앞서서 가면 흉년으로 인식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현재까지 이어져 지역에 따라 좀생이별 보기의 기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 별빛이 불안정하면 대체로 바람이 분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일식과 월식은 대체적으로 모두 좋지 않은 징조로 보았다. 오성들도 계절별로 그 색깔과 밝기가 정상이면 화평하지만 원래의 상태와 다르다거나 오성 중에 두 개 이상의 행성들이 합(合), 수(守), 범(犯), 투(鬪)하면 재해가 있다고 보았다. 그 외 요성, 객성, 유성, 혜성의 경우는 모두 불길한 징조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천문 예측 문헌 기록과 민속과의 관련성을 볼 때, 달점 보기나 좀생이별 보기 등 달이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민속의 상당 부분이 문헌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다. 추후 민속 연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은 유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천문 예측, 천문, 해, 달, 별, 묘성, 혜성, 삼성, 점후, 점성.

1. 서론

과거 농경사회에서 지대한 관심은 다름 아닌 농사에 대한 풍흉 여부였다. 농사는 그해의 기후에 따라 풍흉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농경사회는 기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예측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다. 과학적 기상 예보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에는 주로 경험적이고 특이한 천문기상 현상에 기반하여 기후를 예측하였다. 민간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세시풍속이 전승되고 있다. 달점 보기나 좀생이별 보기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후나 풍흉에 대한 예측은 문헌에도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주로 세시기나 농서, 유서류(類書類) 등에서 점후(占候)[1], 점험(占驗)[2],

1) 조선 전기의 문헌인 『촬요신서(撮要新書)』에는 「점후문(占候門)」의 항목이 있다. 이때 '후'는 계절이나 날씨를 의미하지만 넓게는 조짐이나 징조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점후란 날씨나 기후를 점치거나 풍흉과 관련된 징조를 보고 점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박세당이 쓴 『색경』에 「전가점험(田家占驗)」이라는 항목이 있다. 또한 실록에서도 점험이라는 용

험세(驗歲)[3], 후세(候歲)[4] 등 다양한 용어로 나타난다. 이렇게 용어는 다르지만 대체로 해, 달, 별, 천둥소리, 바람, 구름, 노을, 무지개 등을 보고 기후나 풍흉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구름이나 하늘의 상태를 보고 다가올 날씨를 경험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관천망기(觀天望氣) 혹은 일기이언(日氣俚諺)이라고도 한다.[5] 여기서 천둥소리나 바람, 구름 등은 기상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해와 달, 별, 행성이나 혜성 등은 천문에 해당된다. 이렇게 천문에 해당되는 현상을 보고 기후나 풍흉을 예측하는 것을 '천문 예측'이라고 할 수 있다.[6] 이 연구에서는 천문 예측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천문 예측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도 세시풍속의 하나로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민속이다. 이러한 민속이 단순히 민간에서 구전으로 전승된 것일 수도 있으나 전근대 시기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천문 예측의 방법이 점차 민간에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것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 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천문 예측의 양상을 살펴보고 실제 민속과 비교하여 그 유사성 혹은 차별성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근대 시기, 특히 조선시대에 편찬된 문헌들을 대상으로 하여 천문

어가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조선 명종 대에 요성(妖星)이 북두칠성을 범하자 이에 놀라 신하들이 임금에게 이를 고하는 대목에서 "신들이 『문헌통고(文獻通考)』의 상위지변(象緯之變) 조를 두루 상고해 보니 요성이 북두칠성을 범하는 것은 점험(占驗)상 참혹함이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명종실록』 16권 명종 9년 5월 30일. 이처럼 점험이란 이미 일어난 천문 현상 등에 따른 경험 증거를 살펴 앞으로의 조짐을 예측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중국의 문헌 중에 『천문점험』, 『점험록』이 있다. 김일권, 「전통시대 기상예측의 자료와 점후론 구조: 임원경제지 위선지 구성을 참조하여」, 『정신문화연구』 제36권 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a, 242면.

3) 조선 숙정 때 홍만선이 쓴 『산림경제』의 「치농」에 보면, 험세(驗歲) 항목이 있다. 민족문화추진회 역, 『신편 국역 산림경제』 1, ㈜한국학술정보, 2007, 132면.

4)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위선지」에 후세(候歲)라는 항목이 있으며 『농정본사』와 같은 농서에도 「구호지」에 후세(候歲) 항목이 있다.

5) 김미희 등은 농업 및 생활기상 예측 기술을 총 17개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김미희 외, 「고농서에 나타난 천기 예측 기술」, 『농업사연구』 제8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2009a, 78면.

6) 김일권은 자연의 사태를 미리 보고 기상 기후를 묻는 행위를 기상점후론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전통시대 자연관에서는 천상과 기상의 요소가 서로 엄밀히 분리되지 않고 대개는 혼합되어 복합적으로 인식되었다고 보았다. 김일권, 앞의 글, 2013a, 219면, 221면. 이러한 양상은 『임원경제지』 「위선지」에도 드러나 있는데 이를 세시점후, 천문점후, 풍우점후, 물상점후, 술수점후 등 다섯 종류로 나눈 바 있다. 같은 글, 224면. 이 중에 천문점후가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천문 예측에 해당된다.

예측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현재 전승되고 있는 민속과 비교하여 그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기후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주로 농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류상범・이병렬은 『증보산림경제』에 수록된 「증보사시찬요」의 내용 중에 날씨와 관련된 부분을 현대 기상학적 관점에서 비평했다.[7] 여기서는 대체로 과거 관천망기의 전통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고 나름 과학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연구는 김미희 등으로 이어지는데 이들 역시 「증보사시찬요」에 나타난 기상학적 지식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특히, 특정일의 기상 상태를 예측하는 것은 '특이일(Singularity)'이라고 하여 기상학적으로 개연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날씨 관련 속담 대부분은 기상학적으로 옳다고 보았고 결국, 농서에 기록된 날씨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은 관측기기의 도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과학적 타당성이 있는 날씨 예측 방법이며 후세에 전할 수 있는 훌륭한 경험 예보라고 평가하였다.[8] 그 밖에 날씨 관련 속담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김광식의 연구가 있다.[9]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과거 관천망기와 같은 예측의 방법이 비과학적인 점술이 아닌,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를 가진 유의미한 전통 지식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필자 역시 이러한 관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연구는 주로 기후 현상과 관련된 것이므로 필자가 집중하고자 하는 천문 예측과는 관련이 적다.

한편, 김일권은 조선시대 다양한 문헌들을 살펴보고 그중에 기상 점후와 관련된 부분을 발제하여 분석한 바 있다.[10] 또한, 그러한 문헌 중에 『임원경

---

7) 류상범・이병렬, 「증보 산림경제의 기상학적 지식에 대한 평가」, 『한국농림기상학회지』 제10권 3호, 한국농림기상학회, 2008.

8) 김미희 외, 「고농서에 나타난 관천망기의 지혜」, 『농업사연구』 제8권 3호, 한국농업사학회, 2009b, 100면, 106면.

9) 김광식, 『생활기상과 일기속담』, 향문사, 1979.

10) 그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과거 문헌에는 천문문(天文門), 천도문(天道門), 천지문(天地門), 건도문(乾道門), 천도부(天道部), 천문류(天文類) 등의 항목에 천문에 대한 기본 내용과 기상 점후가 수록되어 있다. 김일권, 「조선시대 기상점후 류서류와 기상자연학적 고찰」, 『중앙사론』 제38집, 중앙대 중앙사학연구소, 2013b.

제지』「위선지」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천문 기상 점후론의 개요를 살펴보기도 하였다.[11]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는 문헌들에 기재되어 있는 천문 기상 점후와 관련된 항목과 개략적인 내용을 서술하는 데 그치고 있어 그 자세한 양상과 그러한 양상이 문헌 간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천문 현상, 즉 해, 달, 별 등을 관찰하여 예측하고 이것이 실제 민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문헌들을 중심으로 천문 예측에 대한 방법, 즉 달을 보고 예측하는 방법과 별을 보고 예측하는 방법, 그리고 해를 보고 예측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검토하고자 하는 문헌은 주로 세시기와 농서, 유서류(類書類), 개인 문집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에서 행해지는 민속과 비교해 보고 그 관련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2. 농서와 유서류에 나타난 천문 예측

농서는 농사에 관련된 농사 시기와 기술, 작물 등에 대한 지식 이외에도 농사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후를 예측하는 점후도 간혹 실려 있다. 이 중에 박세당이 쓴 『색경』(1676)과 필자 미상의 『농정서』[12]를 중심으로 천문 예측의 내용을 살펴보자.[13]

먼저,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이 쓴 『색경』의 「전가점험(田家占驗)」[14]

11) 그는 「위선지」에 나타난 기상 점후론을 세시점후, 천문점후, 풍우점후, 물상점후, 술수점후 등 다섯 종류로 나누고 이를 다시 시후(時候), 물후(物候), 술후(術候)로 집약하였다. 즉, 세시점후와 천문점후, 기상점후 등은 모두 시기적 계기에 의한 점후를 다룬다는 점에서 시후류로 묶었다. 또한 생활공간의 주변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물적 소재를 가지고 기상점후를 논하는 것을 물후류로, 간지역일과 역년운기에 따라 기상기후의 변동이나 1년 농사의 풍흉을 논하는 것을 술후류로 분류하였다. 김일권, 앞의 글, 2013a, 224-225면.

12) 농촌진흥청 편, 『고농서국역총서 3: 농정서』, 농촌진흥청, 2002.

13)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전술했던 김미희 외의 연구가 있다. 김미희 외, 앞의 글, 2009b. 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여씨춘추』, 『색경』, 『증보산림경제』, 『과농소초』 등을 대상으로 하여 기상 예측의 방법을 분석한 바 있다.

에 보면, '천문류' 항목에 '점일(占日)', '점월(占月)', '점성(占星)'이라는 제목으로 천문 예측의 내용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를 간추려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햇무리[日暈]가 지면 비가 온다.
○ 해에 귀가 생길 경우[日生耳] 속설[諺云]에 '남쪽에 귀가 생기면 맑고, 북쪽에 귀가 생기면 비가 오고, 해에 귀가 둘이 생기면 바람이 멎고 비가 걷힌다.'고 하였다. 길게 아래로 늘어지면 '백일당(白日幢 : 백일기)'이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맑다.
○ 해가 구름 속에서 떠오르면 날씨가 맑다. 속설에 '해가 구름에 가려졌다가 내리쬐면 늙은 화상을 태워 죽인다.'고 하였다.
○ 해가 지고 나서 연지처럼 붉은색이 나타나면 비는 없고 반드시 바람이 분다. 이상의 징후는 모두 검증된 것이다.[15]

○ 달무리가 지면 바람이 부는데, 관계되는 방향에 따라서 바람이 불어온다.
○ 초승달로 비를 예상한다. 속설에 '달이 활을 걸어놓은 것 같으면 비가 적고 바람이 많으며 달이 암키와 같으면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비가 내린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달이 비스듬히 누워 있으면 물이 많아 넘실넘실하고 달이 옆으로 기울면 물 한 방울도 없다.'고 하였다.
○ 초승달이 북쪽으로 떨어지면 쌀이 귀하다. 속설에 '달이 뒷벽[後壁]을 비추면 개가 먹을 밥을 사람이 먹게 된다.'고 하였다.
○ 초승달 아래를 검은 구름이 가로질러 끊어놓으면 이튿날 비가 온다.[16]

○ 속설에 이르기를 '별 하나가 밤을 지키고 있으면 날씨가 맑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비가 오는 날이라도 하늘에 별이 1-2개만 보이면 이날 밤에는 반드시 맑을 것이라는 뜻이다. 또 '샛별[明星]이 반짝반짝 빛나면 다음날 아침에도 여전히 비가 온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비가 오랫동안 내릴 것이라는 뜻이다.

---

14) 이 『색경』은 박세당이 1273년 원나라에서 편찬된 『농상집요』를 주로 참고하여 집필하였다고 한다. 농촌진흥청 편, 『고농서국역총서 1: 색경』, 농촌진흥청, 2001, 9면. 그러나, 「전가점험(田家占驗)」 항목은 『농상집요』에는 없는 부분으로 다른 문헌을 참고했거나 본인의 경험과 견문을 토대로 기술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책에서 천문 예측을 기술하면서 '언운(諺云)'이라고 밝힌 대목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15) 농촌진흥청 편, 「천문류—해를 보고 예상하기, 앞의 책, 2001, 227면.
16) 농촌진흥청 편, 「절후류—한 달[旬朔]의 징후」, 같은 책, 228면.

○ 별빛이 가물거리며 안정되지 않으면 바람이 분다.
○ 여름날 밤에 별이 빽빽하게 나타나면 덥다.[17]

이처럼, 햇무리나 달무리가 있으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분다고 보았다. 또한, 해를 보고 점을 칠 때 '해에 생긴 귀'는 '일이(日珥)'라고도 하는데 태양 주위에 나타나는 운기(雲氣)를 말한다.[18] 초승달의 모양으로 비와 바람을 점치는 것도 흥미롭다. 별을 보고 점치는 경우는 별의 밀도나 별빛의 정도로 비와 바람을 점쳤다. 특히, 이 책에서는 천문 예측의 관행을 서술하면서 '언운(諺云)'이라고 한 대목이 주목된다. 즉, 민간의 속언이 그렇다는 것인데 이는 당시 그러한 예측 방법이 민간에서 구전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19]

다음으로, 필자 미상의 『농정서』[20]에 '농사점후' 항목이 있다. 여기에는 정월부터 12월까지 농사와 관련된 점후를 서술하였고 이후에는 논일(論日), 논월(論月), 논성(論星) 등을 서술하였다. 먼저, 정월에는 초8일을 '상팔일(上八日)'이라고 하는데 속담에 "상팔일의 밤에 삼성(參星)[21]이 보이지 않으면 보름날 밤에 붉은 등[紅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22] 4월 입하에 햇무리가 있으면 홍수가 난다고 했다.[23] 다음에 해와 달, 별을 보고 예측하는 부분은 전술했던 『색경』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이로 보아 해와 달, 별을

17) 농촌진흥청 편, 「천문류—별을 보고 예상하기」, 같은 책, 229면.
18) 태양 주위에 청・적・황・백색의 운기(雲氣)가 2개 나타나는 현상으로 둥글고 작은 것이 태양의 하부 주위에 나타나는 것을 일이(日珥)라 하는데, 이런 현상은 햇무리가 졌을 때 잘 보인다. 그러한 예로 다음의 기록이 있다. 『중종실록』 중종 13년 무인. "태백이 주현하였다. 햇무리가 지고 양이(兩珥)가 있었다.[丁亥/太白晝見, 日暈兩珥.]"
19) 그러나 후술하는 여러 문헌에도 동일한 서술이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중국의 문헌을 전거로 제시한 경우도 있어서 문헌의 내용이 민간에 수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 농촌진흥청 편, 앞의 책, 2002. 이 책의 저자를 최한기로, 편찬 시기는 19세기 중반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농정서」, 한국민족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농정서&ridx=0&tot=3180(2019.06.29 검색).
21) 삼성은 삼수(參宿)를 말하는 것으로 서방 7수 중 마지막 별자리를 말한다. 서양 별자리로는 오리온 자리에 해당된다.
22) 농촌진흥청 편, 앞의 책, 2002, 70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겨울철 중위도 지역의 날씨는 7일 주기로 반복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정월 8일에 삼성이 보이지 않으면, 즉 날이 흐리면 보름날 비가 올 수 있다는, 상당히 타당성 있는 속설로 보기도 한다. 김미희 외, 앞의 글, 2009b, 100면.
23) 농촌진흥청 편, 앞의 책, 2002, 72면.

보고 점을 치는 내용은 『색경』이나 『농정서』, 둘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록했던 것으로 보인다.

천문 예측의 내용은 백과사전 성격의 유서류(類書類)[24] 문헌에 보다 상세하고 방대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유서류 문헌의 서두에는 대부분 천문과 점후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다. 기상 점후와 관련된 조선시대 유서류에 대해서는 김일권이 개괄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25] 그가 개괄한 문헌들 중에서 천문 예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문헌들만 추려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박흥생(朴興生, 1374-1446)이 쓴 『촬요신서』(1446)에는 은하수를 보고 추위의 시기와 풍흉을 예측하였다. 즉 "은하수가 동서로 곧게 뻗어 있으면 일찍 추워지고 비스듬히 있으면 가을에 곡식이 잘 여물 것이다."라고 하였다.[26]

다음으로, 이익(李瀷, 1681-1763)의 『성호사설』(1760)에는 「천지문」 항목에 천문 기상의 관측 문제나 천문학적 원리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는 달과 필성(畢星)[27], 기성(箕星)[28]이 만났을 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분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익이 직접 이를 관측하여 알아내었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또한, 형혹성(熒惑星)[29]이 남두(南斗)[30]를 침범하는 것은 대단히 불

24) 유서(類書)란 전통시대에 자료를 널리 수집하여 유형별로 편집한 책을 말한다. 유서는 현대의 백과사전과 유사하지만 백과사전은 항목별로 내용을 압축 정리하여 순서에 따라 편집한 것이어서 자료를 모아 편집한 전통시대의 유서와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유별로 나누어 백과사전적 지식을 총집하였다는 점에서 본다면 유서는 전통시대의 백과사전이라고 볼 수 있다. 박인호, 「장서각 소장 유서류의 개관과 특성」, 『장서각』 제35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271면.

25) 그가 검토한 조선 전기 문헌으로는 『촬요신서』, 『금양잡록』, 『고금설원』 등이 있으며 조선 중기에는 『지봉유설』, 『유원총보』, 『신편휘어』 등이 있다. 조선 후기에는 『민천집설』, 『성호사설』, 『증보산림경제』, 『고사십이집』, 『고사신서』 등이 있으며 조선 말기에는 『규총서』, 『임원경제지』, 『오주연문장전산고』, 『송남잡지』, 『증보문헌비고』 등이 있다. 김일권, 앞의 글, 2013b. 그가 제시한 이 문헌들의 편찬 시기는 현재 알려진 시기들과 대체로 일치하지만 간혹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단 그가 제시한 편찬 시기를 따르도록 하겠다.

26) 박흥생 찬, 『촬요신서』 권5. "天河, 東西直則寒早, 斜則秋熟."

27) 필수(畢宿)를 말하는 것으로 28수 중 서방 7수 중 다섯 번째 별자리를 말한다.

28) 기수(箕宿)를 말하는 것으로 28수 중 동방 7수 중 마지막 별자리를 말한다.

29) 『천문류초』에 의하면, 형혹성은 화성을 말하며 붉은색이고 크기가 진성(토성)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이순지 저, 김수길·윤상철 역, 『천문류초』, 대유학당, 2013, 357면.

30) 남두는 두수(斗宿)라고 하며 28수 중 북방 7수 중 첫 번째 별자리를 말한다.

길한 참변이라고 보았다. 해당 기사는 다음과 같다.

> ○ 달이 별을 따르는 것이 바람과 비와 관계가 있다. 『시경(詩經)』에, "달이 필성(畢星)에 걸쳤다."는 것이 그 예다. 내가 겨울에 시험해 보니, 달이 미처 필성에까지 가지 않았는데도 먼저 눈이 내렸다. 아마 달이 위성(胃星)[31]이나 묘성(昴星)[32]의 자리에만 가더라도 그것이 비나 눈이 내릴 징후라고 보아야 될 듯하다. 천문기상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참고하기를 바란다.[33]
> ○ 지금 사람은 (달이) 필성에 걸치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기성(箕星)에 걸치면 반드시 바람이 분다는 것은 그다지 알지 못한다.[34]
> ○ 형혹성(熒惑星)이 남두(南斗)를 침범함은 천재(天災)의 가장 큰 것이다.[35]

위에서 달이 별을 따른다느니 달이 별에 걸쳤다는지 혹은 침범했다고 하는 것은 달과 별의 거리가 가깝고 달의 기운이 별까지 미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어찌 되었든 이러한 현상은 비나 바람, 혹은 재변의 징조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유중림(柳重臨, 1705-1771)의 『증보산림경제』(1766) 중 「증보사시찬요」 정월 조와 전가점후(田家占候) 조에 천문 예측의 내용이 일부 기술되어 있다. 정월 조에서는 정월 초파일과 보름에 행하는 천문 예측이 기술되어 있다. 즉, 정월 초파일에 삼성(參星)이 보이지 않으면 보름날에 비가 올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월 보름에 바람이 불면 한식에는 반드시 비가 올 것이라고 했다.[36] 『농정서』에서도 정월 8일에 삼성이 보이지 않으면 보름에 비가 온다는 예측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미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31) 위수를 말하는 것으로 28수 중 서방 7수 중 세 번째 별자리를 말한다.
32) 묘수를 말하는 것으로 28수 중 서방 7수 중 네 번째 별자리를 말한다.
33) 이익, 「월리필(月麗畢)」, 『성호사설』 제1권 천지문. "月之從星則以風雨如, 詩所謂月麗于畢是也. 余於冬月驗之或未及畢而先雪, 意者月至胃昴之墟是為雨雪之兆耶, 觀象者宜審之."
34) 이익, 「월지종성(月之從星)」, 『성호사설』 제1권 천지문. "今人皆知宿畢之必雨, 而其宿箕之必風, 則或未之知矣."
35) 이익, 「형혹입남두(熒惑入南斗)」, 『성호사설』 제1권 천지문. "熒惑入南斗, 天災之大者也."
36)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농서』 5, 아세아문화사, 1981, 11면. "上八日不見參星, 上元日雨, 上元日有風, 寒食必雨."

그리고 정월 보름밤에 월영법(月影法)이라는 달그림자 점보기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다. 해당 기사는 다음과 같다.

> 정월 보름, 즉 15일에는 월영법(月影法)이라는 점을 본다. 이날 초야에 10자의 나무 기둥을 평평한 마당 중앙에 세워 놓는다(자는 주척을 사용하거나 혹은 포백척을 사용해도 된다). 밤에 이르러 표 그림자가 남북에 놓여 짧아지는 순간을 정하여 이전에 잰 자로 그림자를 재는데, 그 길이가 7자나 8자가 되면 그해는 비와 볕이 때에 잘 맞아 알곡이 잘 여물 것이다. 그 그림자가 5자나 6자면 그 다음으로 좋다. 3자나 4자면 가뭄이 들고 1자나 2자면 큰 가뭄이나 혹은 큰 홍수가 날 것이다. 9자나 10자면 가장 흉하다.[37]

이러한 월영법, 즉 달그림자 점보기는 다른 문헌에도 자주 언급되는 예측 방법이다. 여기서는 7-8자가 가장 좋은 것으로 보았고 5-6자 정도도 괜찮다고 보았다. 그러나 1-4자, 9-10자, 즉 너무 짧거나 긴 것은 불길한 것으로 보았다. 정월 조 외에 전가점후 조에도 일부 천문 예측의 내용이 나와 있다.

논일(論日), 논월(論月), 논성(論星) 등의 항목에서 주로 해와 달, 별 등의 무리[暈]나 밝기, 구름 등으로 기후를 예측하는 것이 서술되어 있다. 이 역시 전술했던 『색경』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즉, 햇무리가 있으면 비가 온다고 했다. 해의 남쪽에 귀가 있으면 맑고, 북쪽에 귀가 있으면 비가 오며, 해에 귀가 둘이 생기면 바람이 멈추고 비가 그친다고 보았다.[38] 또한 초승달을 보고 비 오는 것을 점쳤는데 '달이 활[桂弓] 모양이면 비가 적게 오고 바람이 많이 분다. 달이 암키와[偃瓦] 같으면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비가 온다.'고 하였고, 또 '우묵한 달에 물이 넘실거리는 듯, 달을 기울여도 물은 쏟아지지 않는다.'고 하였다.[39] 또한, 별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일정하지 않으면 대체

37) 같은 책, 13면. "上元 卽十五日, 占月影法. 是日初夜, 立十尺木於庭中平正處(尺用周尺或用布帛尺亦可). 至夜標影直南北正, 短時以前所量尺量影, 長至七八尺則其年雨暘時若歲大稔. 五六尺次之, 三四尺旱, 一二尺或大旱或大水, 九尺十尺最凶."

38) 농촌진흥청 편, 『고농서국역총서 6: 증보산림경제Ⅲ』, 농촌진흥청, 2004, 210면.

39)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앞의 책, 54-55면. "新月卜雨(初生月前月大晝初二晚見前月小盡初三晚見)諺云, 月如桂弓小雨多風, 月如偃瓦不求自下, 又云月偃偃水漾漾月子側水無滴."; 농촌진흥청 편, 앞의 책, 2004; 「달[論月]」, 한국전통지식포탈, 2010.2.12, https://doi.org/10.20928/KTKP.LIF.0000206238(2

로 바람이 불어오고 별빛이 보였다 사라졌다 하면서 움직이지 않으면 대체로 비가 온다고 했다.[40]

다음으로, 서명응이 쓴 『고사신서』(1771) 「농포문(農圃門)」의 점후(占候) 장에서도 논일(論日)[41], 논월(論月)[42], 논성(論星)[43] 등의 항목이 있다. 이 책에서도 천문 예측의 내용은 전술한 『색경』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다음으로, 서유구(徐有榘, 1764-1845)가 쓴 『임원경제지 위선지』(1827)[44]에는 방대한 천문 예측의 내용이 실려 있다. 권1에서 권3까지는 「후세(候歲)」 편으로 일 년 점후에 해당되고 권4는 '후풍우(候風雨)' 편으로 풍우 점후에 해당된다. 「후세」 권1은 음력 정월부터 12월까지 각 달에 보는 점후를 설명하고 있다. 이 중에 햇무리나 달무리, 혹은 해그림자나 달그림자, 삼성(參星) 등을 보고 풍흉이나 길흉을 점치는 법이 나와 있다. 햇무리나 달무리, 달그림자 점치기 등은 전술했던 여러 문헌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해그림자로 점치는 것은 처음으로 제시되어 있다. 해그림자는 정월, 2월, 5월, 7월, 10월 등 수시로 행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여기에서는 정월 초파일, 즉 1월 8일에 삼성 보기가 있다. 그러나 삼성 보기의 원리는 묘성 보기와 같이 달과의 거리, 선후 관계로 길흉을

019.04.30 검색).

40)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앞의 책, 55면. "星光閃爍不定, 主有風, (…) 星光明滅不動, 主雨."

41) 서명응, 「점후(占候)」, 『고사신서』 농포문(農圃門);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앞의 책, 338면. "해를 논하다. 해에 귀가 생기면 비가 개는 것이라고 점을 친다. 속담에 남쪽에 귀가 생기면 맑고 북쪽에 귀가 생기면 비가 온다고 한다. 해에 쌍으로 귀가 생겨서 아래로 길게 드리우면 이를 '백일당(白日幢)'이라고 하며 오랫동안 맑다.[論日. 日生耳, 占晴雨, 諺云, 南耳晴, 北耳雨, 日生雙耳, 長而下垂名白日幢, 主久晴.]"

42) 같은 책. "달을 논하다. 달무리가 있으며 주로 바람이 분다. 어느 방향에 이지러짐이 있으면 즉 그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초생달 아래가 검은 구름으로 횡으로 끊어져 있으면 주로 이튿날 비가 온다. 달이 다하도록 비가 내리지 않으면 즉 다음 달 초에 반드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다. 25일을 이르러 '월교일'이라고 하는데 이날 비가 오면 오랫동안 흐리다. 27일, 28일에 '교월우'가 내리면 초 2일과 3일은 맑지가 않다.[論月. 月暈主風何方有闕卽此方風來, 新月下有黑雲橫截主來日雨, 月盡無雨則來月初必有風雨, 廿五日謂之月交日有雨主久陰, 廿七廿八交月雨初二初三勿肯晴.]"

43)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앞의 책. "별을 논하다. 속언에 하나의 별이 밤을 지키고 있으면 맑다고 했다. 이 말은 비가 온 후에 밤에 단지 한 개 혹은 두 개의 별이 보이면 이날 밤은 반드시 맑다는 말이다.[論星. 諺云, 一個星保夜晴. 此言, 雨後, 天陰但見一兩星, 此夜必晴.]" 이 대목은 전술한 『색경』에서도 보인다.

44) 서유구 저, 김일권 역주, 『임원경제지 위선지』(1-2), 소와당, 2011a-b.

점친다. 다만, 길한 것으로는 삼성이 달에서 서쪽에 한 길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한 길이 넘거나 달의 동쪽에 있으면 가뭄이나 수해가 든다는 것이다.[45] 이는 이후 다른 문헌에서 나타난 묘성 혹은 삼성 보기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임원경제지』 중 「위선지・후세(候歲)」에 실린 한 해의 천문 예측

월	점후	내용	전거
정월	햇무리	병정일에 있으면 가뭄, 무사일은 큰 수해, 경신일은 병란, 임계일은 범람.	군방보
		설날에 있으면 곡물이 덜 익음.	편민서
		초하루에 하얀 햇무리 두 겹이면 폭풍우가 잦고 오곡이 상함. 검은 햇무리 두 겹이면 큰 수해, 붉은 햇무리 두 겹이면 황충해와 가뭄, 청색 햇무리는 큰 가뭄과 역질이 있음.	관규집요
	월식	우수 뒤 월식이면 조[粟]의 가격 하락.	증보도주공서
	동정(東井) 별자리	설날에 구름이 끼면 그해 큰 홍수.	월령통고
	세성(歲星)	초하루에 청색이면 뽕나무가 잘 되고 적색이면 콩이 잘 되고 황색이면 벼가 잘 됨.	물리론
	달그림자	보름밤에 2자의 규표를 세워 그림자가 2자보다 짧으면 큰 가뭄, 2자 5치3자면 작은 가뭄, 3자 5치-4자면 곡물이 잘 여물고 4자 5치~5자면 작은 수해, 5자 5치-6자면 큰 수해	물리론
		보름밤 한 길의 장대를 세워서 남중 시 그림자 7자는 곡물이 매우 잘 됨, 6자는 적게 여묾, 9자-한 길이면 수해, 5자는 가뭄, 3자는 큰 가뭄.	군방보
	달	보름에 북쪽 가까이 뜨면 산골 풍년, 남쪽으로 기울면 해변이 풍년.	어우야담
	해그림자	초파일 오시에 장대를 세워 그림자가 장대보다 길면 큰 물난리, 9자면 화평, 8자면 전염병, 7-6자면 비가 많고 물난리, 5자-4자면 바람이 심함, 3자면 황충해, 2자-1자면 가물고 기근.	점험서
	삼성(參星)	초파일에 달에서 서쪽으로 한 길 이내에 있어야 함, 한 길 이상이면 큰 가뭄, 달의 동쪽에 삼성이 있고 한 길을 넘지 않으면 수해가 있음.	증보도주공서
2월	해그림자	경칩날 그림자가 8자 2치가 마땅하나 이보다 짧으면 안개가 끼고 어린 벼가 성장하지 못하고 노인들에게 병이 많음.	역위
		춘분날 그림자가 7자 4치 2분이 마땅하나 이보다 짧으면 가물고 쌀이 잘 여물지 않고 사람들이 귀 가려움 병에 걸림.	역위
3월		-	
4월	햇무리	입하일에 햇무리를 보면 수해를 입음.	농정전서 기력촬요

45) 여기서 삼성이 달의 서쪽에 있다는 의미는 달과 별의 일주 운동 상으로 보았을 때 삼성이 먼저 떠서 진다는 의미로 삼성이 달보다 앞서간다는 언술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전거로 『증보도주공서(增補陶朱公書)』를 들었다. 도주공은 범려(范蠡, B.C.536-448)라는 인물로 춘추 말기 정치가로 알려져 있다. 「范蠡」,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E8%8C%83%E8%A0%A1/425181?fr=aladdin(2019.06.29 검색). 이 전거에 의하면 이러한 묘성 보기는 중국에서 이미 춘추시대에도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해와 달	14일 황혼 무렵에 해와 달이 서로를 비추면 봄과 가을에 가뭄이 듦.	월령통고
	달	16일 달이 일찍 뜨면 그해는 크게 가뭄이 듦, 늦게 뜨고 색이 희면 수해가 생김.	증보도주공서
		16일 달이 일찍 뜨고 구름은 없고 달빛이 홍색이면 크게 가뭄이 듦, 늦게 뜨고 희면 비가 자주 옴, 밤이 깊어야 뜨면 큰 수해가 있음, 달이 일찍 낮게 뜨면 벼 수확은 좋고 더디게 높게 뜨면 밭 작물이 잘 안 됨.	
	달그림자	16일 달이 중천에 뜰 때 장대의 길이(한 장)를 넘으면 수해가 있고 여름에는 가뭄이 듦, 9자면 주로 삼시(三時, 하지 후 15일간)에 비가 내림, 8자-7자면 주로 비가 내림, 6자면 낮은 지대의 밭 작물은 잘 되지만 높은 곳은 평년의 절반임, 5자면 주로 여름에 가물고 4자면 황충이 있음, 3자면 사람들이 굶주림.	군방보
5월	달	달이 크면 오이를 파종하지 않고 작으면 가뭄이 듦.	군방보
	해그림자	망종일 오시(午時)에 그림자가 4자 2치 2분에 미치지 못하면 그해 오이가 잘 자라지 않음.	동방삭점서
		하짓날 오시에 그림자가 1자 8치에 미치지 못하면 벼가 잘 여물지 않음.	
	별	하짓날 밤에 은하수 별들이 조밀하면 비가 내리고 성글면 비가 많음.	세시잡점
	햇무리	하지에 햇무리가 지면 그해는 물난리가 있음.	편민도찬
6월		-	
7월	월식	7월 중에 월식이 있으면 그 다음 해 소와 말이 귀해짐.	군방보
	해	태양에 광채가 없으면 충재로 인해 흉년이 듦.	가숙사천
	해그림자	입추일 오시에 해그림자가 4자 5치 2분 반이 되면 그해 오곡이 잘 여물 것임.	월령점후도
	은하수	칠석날 은하수가 사라지면 쌀값을 정하러 다녀야 한다. 빨리 돌아오면 쌀값이 싸지고 더디 돌아오면 쌀값이 귀해짐.	기력촬요
	북두	8일에 북두가 하늘 가득 차 떠오르면 가을에 오곡이 성숙함.	군방보
	달	16일 달이 일찍 뜨면 벼의 수확이 좋고 더디 뜨면 가을비가 서서히 내림.	군방보
8월	달	중추절에 달을 볼 수 없으면 토끼는 새끼를 배지 못하고 방합조개는 알을 배지 못하고 메밀은 열매를 맺지 못함.	담총
		중추 날 밤에 달이 없으면 내년 상원 등절(燈節) 때 비가 내림	군방보
		8월 1일-3일에 달빛이 적황색이면 그달에 비가 적고 청색이면 비가 많음	사광점
		16일 밤에 달빛을 볼 때 만리 밖으로 구름이 없다면 내년에는 곡물이 잘 여물 것임, 구름이 달을 가리면 내년에 제방이 무너져 수물됨	증보도주공서
9월		-	
10월	해그림자	입동일에 한 자 길이의 막대기를 세워 그림자가 한 자가 되면 역질과 가뭄, 더위와 기근이 크게 일어난다. 2자면 가뭄이 들어 붉게 변한 대지가 천 리에 달하며 3자면 큰 가뭄이 든다. 4자-5자면 낮은 지대의 밭은 괜찮고 6자면 높고 낮은 전답에 모두 곡물이 잘 여문다. 7자면 높은 지대 밭의 수확이 괜찮고 8자면 장마가 진다. 9자면 큰 수해가 생기고 10자면 물이 성곽에 들이닥침.	가숙사친
11월	해그림자	동지에 8자 규표를 세워 해가 남중할 때 그림자를 재어 측량할 정도면 그해는 길하고 백성은 화평함, 측량하지 못할 정도면 한 해가 흉하고 흔	후한서 율력지

		란스러움, 그림자가 나아가면 수해가 일어나고 물러나면 가뭄이 듦, 1자를 나아가면 일식이 생기며 1자를 물러나면 월식이 생김.	
		태양이 남극으로 기울지 않으면 온화하나 농사에 해가 됨.	한서 천문지
12월	북두	매년 제야 오경에 북두칠성이 밝으면 오곡이 잘 여물고 어두우면 오곡에 해가 있음. 북두칠성 중 탐랑성은 메밀을, 거문성은 조를, 녹존성은 기장을, 문창성은 참깨를, 염정성은 보리를, 무곡성은 메벼와 찰벼를, 파군성은 팥을, 보성은 대두를 주관함.	월령통고

「후세」 권2에는 점천(占天), 점지(占地), 점일(占日), 점월(占月), 점천하(占天河) 등을 비롯하여 바람, 비, 구름, 안개와 노을, 무지개, 우레와 번개, 서리와 이슬, 눈, 우박, 얼음 등 각종 기후 현상을 보고 점을 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후세」 권3에 점성(占星)과 점운기(占運氣)가 실려 있고 후풍우(候風雨)가 별도의 장으로 실려 있어 특징적이다. 이 후풍우 장에도 「후세」 권2에 있었던 점천(占天), 점지(占地), 점일(占日), 점월(占月) 등이 실려 있다. 그런데 「후세」 권2의 내용과 다른 점은 주로 비와 바람과 관련된 내용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후세」 권2와 권3에서 서술된 점일(占日), 점월(占月), 점천하(占天河), 점성(占星) 항목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점일(占日)에서는 일식, 햇무리, 일이(日珥), 해의 색깔, 해 주변 운기(雲氣), 해의 이변 등을 보고 점을 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일식의 경우, 이분이지(二分二至, 춘・추분, 하・동지)일 때 일식이 있으면 별 재변이 없으나 다른 날에 일식이 일어나면 재변이 있다고 하였다. 즉, 월별로 일식이 있을 때 어떤 재변이 있는지를 여러 전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46]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월별로 일식이 있을 때 특정 지역에 수해나 가뭄 등으로 큰 흉년이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47] 또한, 일식이 28수 중 어느 별자리에서 있느냐

46) 서유구 저, 앞의 책, 2011a, 305-325면.

4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월에 일식이 있으면 제(齊)나라 분야에, 2월에는 노(魯)나라 분야에, 3월에는 초(楚)나라 분야에, 4월에는 송(宋)나라 분야에, 5월에는 양(梁)나라 분야에, 6월에는 패(沛)나라 분야에, 7월에는 진(秦)나라 분야에, 9월에는 한(韓)나라 분야에, 10월에는 진(秦)나라 분야에, 11월에는 연(燕)나라 분야에, 12월에는 조(趙)나라 분야에 큰 흉년이 든다고 하였다. 8월은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일식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부스럼이나 옴 같은 질병이 생긴다고 하였다. 같은 책, 305-307면. 여기서 각 나라의 분야란 동양에서 적도를 따라 하늘을 30°씩 12구역으로 구분하던 방법을 12차(次)라고 하는데 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12분야(十二分野) 또는 12국(十二國)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순지 저, 앞의 책, 483면.

에 따라 재변의 성격을 달리 예고하였다. 예를 들어 일식이 우수(牛宿) 별자리에서 있으면 그 분야에 있는 소와 가축이 질병과 역병에 걸린다고 하였다.[48]

햇무리의 경우에는 햇무리의 색깔, 개수, 귀의 유무 등에 따라 재변의 성격을 달리 예고하였다. 또한, 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햇무리가 28수 중 어느 별자리에서 있느냐에 따라 재변의 성격을 달리 예고하였다. 햇무리의 색깔이 누르면 대체로 바람과 비가 때에 맞아 농전(農田)이 잘 다스려지고 평안해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색깔이 검거나 푸른색, 청색, 적색, 백색, 자주색 등은 모두 좋지 않다. 햇무리의 숫자도 한 겹보다는 두 겹, 세 겹이 점점 재해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았다. 해가 나올 때 해 주변에 둥글고 작은 청색이나 적색 기운을 일이(日珥)라고 하는데 이것이 보이면 역시 재변이 있다고 보았다.[49]

해 자체의 색깔로도 앞으로의 재변을 예측하였다. 해의 색이 백색이거나 핏빛처럼 붉으면 가뭄이 들고 흑광(黑光)이 있거나 한낮인데도 어두워 행인들 그림자가 보이지 않고 해가 저물 때까지 그치지 않으면 큰 수해가 있다고 했다. 또한, 해와 달이 밝지 않고 제 빛깔을 잃으면 재변이 있거나 사람들에게 종기가 생긴다고 했다.[50] 해에 이변이 일어나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해와 달이 함께 밝게 빛나고 그 거리가 1자가 되면 그해는 큰 흉년이 든다고 했다. 또한 두 개의 해가 동시에 나타나면 땅이 꺼지고 큰 수해가 생기며 해 속에 까마귀나 삼족오, 혹은 두 마리 닭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면 큰 가뭄이 든다고 했다. 한편, 해에서 오색의 빗자루 모양[彗]이 생겨나면 천하에 큰 풍년이 든다고 했다.[51]

다음으로, 점월(占月)에서는 월식, 달무리, 월이(月珥), 달의 색깔, 달의 능범(凌犯), 달 주변의 운기(雲氣), 달의 이상 현상 등을 보고 점을 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먼저, 월식의 경우에도, 월별로 월식이 있으면 어떤 재해와 어느 지역이 좋지 않은지를 예고하였다. 월식 역시 일식과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징조이다. 보름날이 아닌데 월식이 있거나 보름 뒤에 월식이 있으면 큰 수해

48) 서유구 저, 앞의 책, 2011a, 312면.
49) 같은 책, 320면.
50) 같은 책, 321-322면.
51) 같은 책, 324-325면.

가 난다고 했다.[52] 또한, 달이 여름에 월식이 있으면 가뭄이 들고 가을에 월식이 있으면 백성들이 불안해지고 겨울에 월식이 있으면 기근이 든다고 했다.[53] 하지만 월식이 있다고 전부 나쁜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즉, 월식이 청색으로 보이면 오곡이 잘 거둬진다고 했다.[54] 또한, 월식이 병일(丙日)과 정일(丁日), 임일(壬日)과 계일(癸日)에 있으면 그해는 풍년이 든다.[55] 월식이 어떤 시각에 일어나는지, 28수 중 어느 별자리에서 일어나는지, 어떤 간지(干支) 일에 일어나는지에 따라 재해의 성격이 달라지고도 한다.[56]

다음으로, 달무리의 경우에도 색깔, 방향, 28수 중 에워싸고 있는 별자리 종류 등에 따라 재변의 성격이 달라진다. 달무리가 좋은 징조인 경우도 있는데 옆에 달귀고리[月珥]가 있으면 그해는 평강해진다.[57] 특히, 월이(月珥)가 황색이면 나라에 기쁜 일이 생긴다고 했다.[58] 또한, 달무리에 유성(流星)이 출현하고 달무리 속에 흰색이 비치면 풍년이 들어 곡식이 잘 익는다. 달무리가 흰색이어도 그해 곡식이 잘 익는다고 한다.[59] 또한, 월색을 보아 재해를 점치기도 했다. 달빛이 푸르게 변하면 기근이, 붉은색으로 변하면 가뭄이 든다. 검은색으로 변하면 수해가 난다. 달이 처음 나올 때 백색이면 가뭄이 들고 청색이면 역질이 든다.[60] 달에 광채가 없어도 기근이 들고 많은 재해가 발생한다. 몇 월에 달에 광채가 없는지에 따라 그 재해의 성격도 달라진다.[61] 다만, 달의 색이 누런색으로 변하면 기쁜 일이 생기고 유덕하게 된다고 했다.[62]

달이 오성(五星)이나 28수를 능범(凌犯)해도 재해가 일어난다.[63] 예를 들어

---

52) 같은 책, 330면.
53) 같은 책, 331면.
54) 일설에는 사람들이 많이 죽고 오곡이 상한다고도 한다. 같은 책.
55) 같은 책, 334-335면.
56) 같은 책, 331-336면.
57) 같은 책, 337면.
58) 월이가 적청색이면 병란과 화재가 발생하고 백색이면 우환과 초상을 당한다. 흑색이면 수재가 드는데 이 모두가 3년 기한 내에 발생한다. 같은 책, 344면.
59) 같은 책, 341면.
60) 같은 책, 345면.
61) 같은 책, 345-346면.
62) 같은 책, 345면.
63) 같은 책, 347-352면. 여기서 능범이란, 능과 범을 말한다. 능이란 직선으로 곧장 그 천체에 다

달이 목성을 범(犯)하면 그 분야에 기근과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유랑하게 되고 능(凌)하면 도적이 많아진다고 한다.[64] 달 주변의 운기(雲氣)도 좋지 않은 징조이다. 푸른 구름이 달을 찌르고 있으면 오곡이 잘 성숙하지 않고 백기(白氣)나 적기(赤氣)가 달을 꿰고 있어도 가뭄이나 수해가 든다.[65] 달의 이상 현상 역시 재해를 예고하고 있다. 달이 보름달인데 달 속에 두꺼비가 보이지 않거나 두 개의 달이 나타나도 큰 수해가 난다. 달이 대낮에도 밝거나 달이 제 궤도에서 어긋나게 운행을 하면 기근이 든다고 했다.[66] 그런데 달 속에 네 개의 혜성[四彗]이 있으면 하늘이 마음을 보이는 것이어서 큰 풍년이 든다고 했다.[67]

은하수를 보고 점을 치는, 점천하(占天河) 항목에서는 두 가지의 예측을 소개했다. 하나는 은하수에 별이 많으면 수해가 잦고 적으면 가물게 된다고 했다. 또 하나는 병(丙)과 정(丁)의 일진이 있는 날에는 사방에 구름이 없는데 은하수 속에만 구름이 있다면 60일 동안 항상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다고 했다.[68]

점성(占星)은 「후세」 권3에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이 방대하다. 서유구가 총론에서 밝혔듯이[69] 다른 유서류에서는 점성에 대한 내용이 소략한 편이다. 반면에 서유구는 하늘의 중심에 있는 삼원(三垣), 즉 중원인 자미원, 상원인 태미원, 하원인 천시원의 별들, 그리고 삼원을 둘러싼 28수의 별들과 오성(五星), 그 외 요성(妖星), 객성(客星), 유성(流星), 혜성(彗星) 등을 망라하여 본

가가 별자리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며 범이란 음과 양의 방향으로 서로 7치 이내로 가까워져서 빛이 서로를 접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순지 저, 앞의 책, 45-46면.

64) 서유구 저, 앞의 책, 2011a, 347면.

65) 같은 책, 353면.

66) 같은 책, 354-355면.

67) 같은 책, 356면. 원래 혜성은 불길한 징조로 알려져 있다. 최천벽(崔天璧) 저, 「서(序)」, 『천동상위고(天東象緯考)』 권14 요혜(妖彗), 남종진 역주,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5. "혜성이 두 개 나타나면 천하에 두 차례 사면령이 내린다. 혜성이 세 개 나타나면 남자들이 모두 죽는다. 혜성이 네 개 나타나면 천하의 임금이 죽는다. 혜성이 다섯 개 나타나면 국토가 쪼개져 왕(王)을 일컬으니 구국(舊國)의 임금이 죽고, 나라가 망한다." 이처럼 혜성이 네 개나 나타나는 현상은 극도로 불길한 것이지만 이것이 달 속에 있을 때는 큰 풍년이 들 길조로 보았다.

68) 서유구 저, 앞의 책, 2011a, 465-466면.

69) "대저 홍수와 가뭄, 풍작과 흉작은 더욱 해와 달, 다섯 행성의 칠정(七政)에 매여 있으나, 누륙(婁陸)의 점후가 성상(星象)에 대한 이해까지 개괄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서유구 저, 앞의 책, 2011b, 16면.

편에 실어 놓았다.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별들이 밝게 빛나면 평온하고 좋은 징조이지만 지나치게 밝거나 어두우면 흉한 징조이다. 또한 객성이나 유성이 별을 범하거나 맞닥뜨리면[抵] 곡식이 귀해지고 사람들에게 역병이 도는 등 재해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오성은 세성(歲星, 목성), 형혹성(熒惑星, 화성), 전성(塡星, 토성), 태백성(太白星, 금성), 진성(辰星, 수성)을 말하는데 이들은 계절에 따라 그 보이는 색과 밝기가 다르다. 계절별로 그 색깔과 밝기가 정상이면 천하가 화평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원래의 상태와 다르다면 재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오성 중에 두 개 이상의 행성들이 합(合), 수(守), 범(犯), 투(鬪)하면 재해가 있다고 보았다.[70] 그 외 요성, 객성, 유성, 혜성의 경우는 모두 불길한 징조이며 그것들의 색깔, 크기, 위치와 방향, 개수 등을 보고 재난의 성격을 점쳤다.

이처럼, 『임원경제지』에는 방대한 내용의 천문 예측의 방법이 서술되어 있다. 특히, 일식과 월식에 따른 예측의 내용을 상세하게 실어 놓았다. 그 전거도 『좌전』, 『황제점』, 『월령통고』, 『군방보』, 『무비지』, 『관규집요』 등 수많은 중국의 문헌을 인용하고 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그 외에도 햇무리와 달무리, 일이(日珥)와 월이(月珥), 해와 달의 색깔, 해와 달 주변 운기(雲氣), 해와 달의 이변, 그리고 은하수와 별들의 색깔, 크기, 위치와 방향, 개수 등 다양하고 상세한 천문 현상을 통한 예측의 내용이 들어 있다.

〈표 2〉 일식과 월식에 따른 후세(候歲, 일 년 점후)와 재해 지역(12국)

월(음력)	일식		월식	
	후세(候歲)	12분야(十二分野) [12국(十二國)]	후세(候歲)	12분야(十二分野) [12국(十二國)]
정월	유랑, 병 창궐, 오곡이 귀해짐	제(齊)나라 큰 기근	한재(旱災), 인재(人災)	진(秦)나라

70) 같은 책, 228-236면. 합(合)은 별빛의 끝이 서로 가까워져서 하나의 별빛처럼 되는 것을 말한다. 수(守)는 거하면서 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일명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말한다. 범(犯)은 전술한 바 있는데 합과 같은 종류이지만 범이 더 재앙이 큰 것을 말한다. 투(鬪)는 떨어졌다가 합하고 합하였다가 떨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서로 능(淩)하기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순지 저, 앞의 책, 43-46면.

2월	가뭄, 콩이 귀해짐, 소들이 죽음	노(魯)나라 흉년	속천(粟賤), 기아	-
3월	수해, 가뭄과 기근, 포백과 쌀이 귀해짐	초(楚)나라 흉년	면사와 쌀이 귀해짐, 기아	-
4월	가뭄과 역질, 육축이 죽음	송(宋)나라 흉년	큰 가뭄, 기아	-
5월	가뭄과 기근, 육축이 귀해짐	양(梁)나라 흉년	가뭄, 육축이 귀해짐	양(梁)나라 나빠짐, 제(齊)나라는 충해
6월	육축과 오곡이 귀해짐, 가뭄	패(沛)나라 흉년	가뭄, 육축이 귀해짐	패(沛)나라 나빠짐, 노(魯)나라 수재
7월	유랑, 수해, 명주 비단이 귀해짐	진(秦)나라 나빠짐	인재, 소와 말이 귀해짐	초(楚)나라 가뭄
8월	부스럼이나 옴 창궐	-	기근, 생선과 소금이 귀해짐, 피부병 창궐	정(鄭)나라 흉년
9월	기근과 역병, 포백과 소금, 여공(女工)이 귀해짐	한(韓)나라 흉년	-	한(韓)나라 나빠짐, 조(趙)나라 소와 양 재해
10월	겨울 가뭄, 육축・생선과 소금이 귀해짐	진(秦)나라 흉년	생선과 소금이 귀해짐	위(衛)나라 나빠짐
11월	역병 창궐, 어염과 쌀이 귀해짐, 소들이 죽음	연(燕)나라 흉년	쌀이 귀해짐	조(趙)・연(燕)나라 나빠짐
12월	수재, 곡식이 귀해짐, 소들이 많이 죽음	조(趙)나라 흉년	큰 수해	진(秦)나라 나빠짐

다음으로, 이규경(李圭景, 1788-?)이 쓴 『오주연문장전산고』(1856)에서는 서운점두변증설(書雲占斗辨證說), 점세변증설(占歲辨證說), 전가오행변증설(田家五行辨證說) 등에서 천문 예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규경의 경우도 대부분 천문 예측의 전거를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풍우류초』에서 "매월 1일 밤에 북두를 보아 만약 가운데에 흰 구름의 기운이 있고 윤택하면 그달 안에 많은 바람과 비가 있을 것이다. 또 말하기를, 북두의 앞에 있는 4개의 별인 괴(魁) 가장자리에 검은 구름이 보이면 당일 밤에 바람이 불고 흐려진다. 북두의 뒤에 있는 3개의 별인 강(罡) 앞에 누런 기운이 있으면 농사를 지을 때 윤택함이 있다.[71]

71) 이규경, 「서운점두변증설(書雲占斗辨證說)」, 『오주연문장전산고』 인사편 기예류 복서(卜筮). "『風雨類抄』每月而一日夜, 視北斗中若有白雲氣而潤澤, 主月內多風雨. 又曰, 魁畔, 北斗前四星也, 黑雲見, 沾滋

○ 방이지(方以知)의 『물리소지(物理小識)』 우점(雨占)에 “황자발(黃子發)의 상우서(相雨書)에 이르기를 ‘무신일(戊申日) 해가 질 때 크고 작고를 막론하고 햇무리가 있으면 비가 오는데, 그 햇무리의 빛깔이 사방이 다 검으면 비가 많이 오고 푸르면 비가 조금 오며, 북두성(北斗星) 가운데 구름이 있으면 5일 뒤에 비가 오며, 은하수(銀河水) 가운데 구름덩이 셋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큰 비가 3일을 계속 내리며 (…)”[72]

○ 육영(陸泳)의 『오하전가지(吳下田家志)』에는 ‘초사흗날 달 아래쪽에 구름이 있으면 초나흗날에는 약간의 비가 온다. 25일을 월교(月交)라고 하는데 25일에 비가 내리면 비가 오래 계속된다.[73]

○ 해에 두 귀가 생기면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으며, 해가 넘어갈 때 그 빛깔이 연지(臙脂)처럼 붉으면 비는 오지 않지만 바람이 불며 (…)[74]

○ 달이 괘궁(掛弓) 같으면 비는 약간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분다. 달이 언와(偃瓦) 같으면 비를 바라지 않는데도 비가 내린다. 달이 언언(偃偃)하면 비가 많이 와서 물결이 출렁인다. 달이 옆으로 기울어지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 달무리가 생기면 바람이 부는데 바람은 달의 이지러진 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달의 어느 쪽이 이지러졌는지를 살펴야 한다. 달무리 안에 별이 없으면 비가 오고, 별이 있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달무리가 점점 조밀(稠密)해지고 색깔이 검어지면 비가 내릴 징조이고, 달무리가 한쪽이 벗어지거나 전부가 벗겨지는 것은 맑을 징조이다.[75]

○ 별빛이 안정되지 않고 반짝이면 다음날 바람이 분다. 유성(流星)이 가는 방향을 살필 것이니 바람은 그 유성이 간 곳으로부터 불어오기 때문이다. 별

於當夜. 罡前, 北斗後三星也, 黃氣知潤澤於耒農.”

72) 이규경, 「전가오행변증설」,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 경사잡류, 기타전적. “【方中履『物理小識・雨占』黃子發『相雨書』曰, 以戊申日候, 日欲入時, 日上有冠雲, 不論大小, 四方黑者大雨, 青者小雨. 北斗中有雲, 後五日雨. 河中有雲三枚相連, 三日大雨.”

73) 이규경, 「전가오행변증설」,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 경사잡류, 기타전적. “陸泳『吳下田家志』曰, 初三月下有橫, 初四暗盤有月. 交二十五日有雨, 則主久雨.”

74) 이규경, 「전가오행변증설」,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 경사잡류, 기타전적. “日生雙耳, 斷月絶雨. 日沒胭脂紅, 無雨也有風.”

75) 이규경, 「전가오행변증설」,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 경사잡류, 기타전적. “月如掛弓, 少雨多風. 月如偃瓦, 不求自下. 月偃偃水漾漾, 月子側水無滴. 月生暈主風, 更看何方缺, 風從缺方來. 月暈內無星雨, 有星不雨. 暈氣漸稠黑雨徵, 忽去一邊, 或全去晴徵.”

빛이 흐린 물에까지 비치면 그 다음날 비가 내린다. 여름밤에 별이 빽빽이 보이면 날씨가 매우 덥고 흑저(黑猪)가 하(河)를 건너가면 큰비가 내린다.[76]

○ 방중리(方中履)가 자기가 지은 『고금석의(古今釋疑)』에서 (…) "초하루부터 상현(上弦)까지 달의 두 끝을 잘 관찰할 것이니, 해 가까운 쪽의 한 끝이 점점 풍만해지는 것은 비가 올 징후이다. 달무리의 빛깔이 희면 맑고, 붉으면 바람이 불며, 빛깔이 연색(鉛色)이면 비가 올 것이니 이는 모두 증기(蒸氣)가 상승하여 그렇게 되는 것뿐이다." 하였다.[77]

이처럼,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는 전술했던 여러 천문 예측의 내용 외에도 북두성, 은하수, 유성 등을 통해 예측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재삼(趙在三, 1808-1866)이 쓴 『송남잡지』(1885)에도 일부 천문 예측의 내용이 실려 있다. 그의 책에서는 「천문류」와 「세시류」 등의 항목이 있는데 천문 예측의 내용은 주로 세시류에 실려 있다. 천문류에는 주로 여러 문헌들 중에 천문 현상에 얽힌 역사적 사건을 간추려서 소개하고 있다. 세시류에 실려 있는 천문 예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옥당한화』에서 말하였다. 이날 밤(정월 대보름)에 한 길까지 장대를 세워서 한밤중에 달그림자를 살핀다. 그림자의 길이가 칠 자가 되면 풍년이 들고, 육 자면 조금 풍년이 들며 구 자면 홍수가 나고 오 자면 가뭄이 들며, 이 자면 큰 가문이 든다.[78]

○ 『후청록』에 "달이 매달린 활과 같으면 비가 적고 바람이 많다. 달이 누운 기와 같으면 빌지 않아도 저절로 비가 내린다. 해와 달무리가 멀게 지면 가까운 날에 비가 내리고 해와 달무리가 가깝게 지면 한참 뒤에 비가 내린다"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은 바람이 불거나 홍수가 날 조짐이라고 여긴다.[79]

---

76) 이규경, 「전가오행변증설」,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 경사잡류, 기타전적. "星光閃爍不定, 次日主風. 流星看其行方, 風隨其方. 明星照泥, 次日雨不住. 夏夜星密, 主大熱. 黑猪渡河, 主大雨.【黑猪, 黑雲. 河, 天河.】"

77) 이규경, 「전가오행변증설」,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 경사잡류, 기타전적. "方中履采入所著『古今釋疑』中, (…) 朔日至于上弦, 視月兩角, 近日一角, 稍稍豐滿, 雨徵也. 月暈白主晴, 赤主風. 色如鉛者, 雨徵也. 總由蒸氣上昇致然耳."

78) 조재삼 저, 강민구 역, 『교감 국역 송남잡지』, 소명출판, 2008, 167면.

79) 같은 책, 177면.

○ 『쇄쇄록』에서 "중추에 달이 없으면 토끼가 새끼를 배지 못하고 조개가 알을 배지 못하며 보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지금 농가에서는 이날 비가 내리면 다음해 보리농사에 흉년이 든다고 한다. 또 "비록 이날 궂은비가 오더라도 천주봉(天柱峯)[80]만은 달이 뜬다"라고 하였다.[81]

○ 「천문지」에서 '모두(旄頭)'라 하고 우리나라에서 '쪼끔별[朝飮星]'이라 하니 작은 것을 의미한다. 하늘의 걸성(乞星)이 2월 6일 밤에 달보다 앞서 가면 풍년이 들고, 달보다 뒤쳐져서 따라 가도 괜찮지만 달과 나란히 가는 것을 가장 꺼린다. 이것은 별로 치는 점이니, 중국에서는 한 해를 점칠 때 오직 이 방법으로 한다고 한다.[82]

이처럼, 『송남잡지』에서는 천문 예측과 관련된 관행을 서술할 때 반드시 전거를 들고 있다. 즉, 정월 대보름의 달그림자 점치기는 『옥당한화(玉堂閑話)』[83]에서, 앞에서 자주 등장했던 초생달의 모습을 보고 비나 바람을 점쳤던 것은 『후청록(侯鯖錄)』[84]에서 인용했다는 것이다. 이 책들은 송원대에 쓰인 것들이라 전술했던 조선시대 문헌들보다 앞선 것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측 방법은 이미 중국에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중국의 문헌들을 통해 조선에도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위에서, '朝飮星'과 관련해서 이를 '걸성'이라 하고 달보다 앞서가야 풍년이라고 한 것은 『임원경제지』에서 삼성이 달에서 서쪽에 한 길 이내에 있어야 길하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3. 세시기와 개인 문집에 나타난 천문 예측

전술했던 천문 예측의 방법들은 세시기에도 잘 나타나 있다. 세시기에는

80) 여기서 천주봉은 남한산의 천주봉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81) 조재삼 저, 앞의 책, 122면.
82) 여기서 「천문지」는 『한서』의 「천문지」를 말한다. 같은 책, 168면. 그런데 『한서』에 '모두(旄頭)'라는 용어는 나오지만 이후에 서술한 걸성과 달과의 위치를 가지고 예측하는 부분은 『한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다른 문헌에서 참고했거나 본인의 경험이나 견문을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원문의 '朝飮星'을 '쪼끔별'로 번역하였다. 이는 번역자가 민간에서 묘성을 '좀생이별'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 생각된다.
83) 원나라의 왕흔(王惲)이 지었다고 한다. 같은 책, 167면.
84) 송나라 조령치가 지었다고 한다. 같은 책, 177면.

절기마다 농사일과 풍속을 소개하면서 시기마다 점후의 내용도 소개되어 있다. 이 중에 천문 예측에 대한 내용만 살펴보고자 한다.[85]

먼저, 김매순(金邁淳, 1776-1840)이 쓴 『열양세시기』(1819)에서는 묘성(昴星)을 보고 풍흉을 예측하였다. 즉, 2월 초6일에 농가에서는 초저녁에 묘수(昴宿), 즉 좀생이별과 달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를 보아 한 해 운수를 점친다. 둘이 같이 가거나 한 치 못되는 거리를 두고 앞서가면 한 해가 길하고 만약 앞이나 뒤로 한 치 이상 멀리 떨어져 가면 그 해는 흉년이 들어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징험해 보면 자못 들어맞는다고 하였다.[86] 8월 풍속에서 노인성 보기와 관련된 내용도 보인다. 즉, 8월 추분에 제주 한라산과 남해 금산, 순천 등에서 노인성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70-80세에 죽으면 오히려 일찍 죽는 편이라고 하며 노인성이 장수와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87] 이를 통해 추분 날 노인성을 보며 장수와 길흉을 예측했던 풍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열양세시기』는 대체로 당대 조선의 세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이나 전대 문헌을 전거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견문을 바탕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민간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관행으로 인식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다음으로, 조선시대 대표적인 세시기인 홍석모(洪錫謨, 1781-1857)의 『동국세시기』(1849)를 살펴보면, 천문 예측의 내용은 크게 정월 보름의 달보기[望月]와 달그림자 재기, 그리고 2월의 삼성(參星) 보기 등이 있다. 우선, 달보기 혹은 달맞이[迎月] 풍속을 보면, 남보다 먼저 달을 보는 사람은 재수가 있다고 했다. 또한, 달빛과 달이 뜨는 모양, 크기, 출렁거림, 뜨는 위치의 높

85) 세시기는 본래 당대 현지의 세시를 기록하는 것이 맞겠지만 모두가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중국의 세시기 등을 참고하여 그 연원 등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세시와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로 세시기에는 당대 세시를 반영한 것이 일반적이라는 전제하에 천문 예측의 관행을 살펴보기로 한다.

86) 국립민속박물관 편, 『조선대세시기Ⅲ: 경도잡지,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 국립민속박물관, 2007, 125-126면. "農家以初昏眡昴宿去月遠近以占歲事, 竝行及差前尺寸以內爲吉, 若先後太遼闊 則謂歲將儉, 幼少不見收哺也. 驗之頗中."

87) 같은 책, 145면.

고 낮음, 윤곽과 두께 등을 보고 그해 풍흉을 점친다. 즉, 달빛이 붉으면 그해 가뭄이 들고 희면 비가 많이 올 징조이다. 달의 둘레가 두터우면 풍년이 들고 얇으면 흉년이 들 징조이다.[88]

정월 보름밤에 행하는 달그림자 재기 풍속도 소개되어 있다. 한 자[尺][89] 길이의 나무를 뜰 가운데 세워놓고 자정에 그 그림자를 재어 그해 풍흉을 점쳤다. 그림자 길이가 여덟 치[寸]면 바람과 비가 성하고 일곱 치나 여섯 치면 모두 길하다. 다섯 치면 불길하고 네 치면 수해와 병충해가 있으며 세 치면 곡식이 여물지 않는다.[90] 또한, 진호의 『화력신재』에 따르면, 정월 보름날 밤에 한 길[丈]이 되는 장대를 세워 놓고 달그림자를 재는데 이때 6-7자[尺]가 되면 풍년이 들고 8-9자면 수해가 나며 3-5자면 반드시 가뭄이 든다고 하였다.[91] 2월에는 저녁 서쪽 하늘에 떠 있는 삼성(參星)을 보고 점을 친다. 초저녁에 이 별들이 달 앞에서 고삐를 끄는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해 풍년이 든다고 보았다.[92]

이처럼, 『동국세시기』에는 천문 예측으로 달보기, 달그림자 재기, 삼성 보기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에 달그림자 재기는 중국의 문헌을 전거로 제시했으며 달보기와 삼성 보기는 그 전거가 명확치가 않다.[93] 그러나 달그림자 재기는 중국의 전거를 근거로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고 했고 달보기에 대해서도 그 예측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고 언급[94]한 것으로 보아 이들 풍속

88) 여기서 달의 둘레가 두텁고 얇다고 하는 것은 달의 기운, 즉 달빛의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즉, 달빛이 밝고 넓게 퍼져 가면 풍년이 들고 달빛이 흐려서 뚜렷하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는 말이다.

89) 여기서 한 자면 약 30.3㎝이고 한 치면 약 3.03㎝이다. 한 길이면 약 3m 정도이다. 홍석모 저, 정승모 역, 『동국세시기』, 풀빛, 2009, 67면.

90) 그 유래를 중국 전한 때 인물인 동방삭(B.C.154-93)에서 나왔다고 하였다. 같은 책, 72면.

91) 같은 책, 7172면. "立尺木於庭中, 月色當午, 以其木影占年穀豊凶, 影八寸風雨榮, 七寸六寸俱吉, 五寸不吉, 四寸水蟲行, 三寸穀不實, 按此法出於東方朔. 又按花曆新栽云, 上元夜竪一丈竿候月午影, 六七尺稔若, 八九尺主水, 三五尺必旱." 진호는 청대 인물이므로 『화력신재』는 적어도 청대, 즉 17세기 초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92) 같은 책, 90면. "初昏見參星在月前, 如牽轡遠, 則徵豊."

93) 삼성 보기와 관련해서 중국 후한 때 인물인 최식이 쓴 『농가언』에 "2월 저녁 하늘에 삼성이 있다."라는 구절을 언급하고 이것이 삼성 보기 풍속을 말한 것이라고는 하고 있으나 삼성 보기의 방법이 이 책에서 가져왔다고는 하지 않았다. 같은 책, 90면.

94) 같은 책, 72면, 67면.

은 그 당시에 보편적인 세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세시기에서 천문 예측은 주로 정월 보름의 달점 보기와 2월의 묘성 보기 등에 집중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세시기 외에 다른 세시기들에서도 달점 보기와 묘성 보기를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정월 보름의 달점 보기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늙은 농부는 정월 대보름날 달의 색깔을 보고 가을 수확을 점친다. 달빛이 붉으면 가물 조짐이고 달빛이 희면 홍수가 날 조짐으로,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95]

> 달의 빛깔을 보아 그 해의 풍년과 흉년을 점친다. 붉은 빛이면 가뭄이 들고 흰 빛이면 홍수가 나고 누런 빛이 나면서 윤기가 돌면 곡식이 잘 익는다고 한다.[96]

> 달을 보아 점치는 일 옛 기록에 없으리오.
> 차창주가 지은 시가 이치에 가깝구나.
> 북쪽이면 산촌 풍년 남쪽이면 어촌 풍년
> 붉으면 화훼가 말라죽고 희면 큰 물이 든다네.
> 올해 달은 둥그렇고 짙은 황색이니
> 바야흐로 재앙 없이 풍년될 것 알겠네.[97]

> 옛 풍속에 정월 대보름날이면 달을 보고 홍수나 가뭄, 풍년과 흉년을 점쳤다. 농사짓는 노인들이 가장 잘 알아 떡 봉우리, 밥 봉우리, 죽 봉우리라는 예언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대개 세시기에 달을 보고 점치는 일에 대한 기록에서 유래하였으니, 이를 '달맞이'라고 한다.[98]

이처럼, 세시기에서는 정월 보름에 보는 달점은 대체로 일치한다. 즉, 달빛의

---

95) 조운종, 「면암집・세시기속」, 국립민속박물관 편, 『조선시대세시기 I 』, 국립민속박물관, 2003, 102면. "老農見上元月色, 占候秋稼, 色赤則徵旱, 色白則徵水, 不少差忒云."

96) 권용정, 「한양세시기」, 국립민속박물관 편, 같은 책, 156면. "又以月色, 占一年豊儉. 赤爲旱 白爲水, 黃澤爲稔云."

97) 김형수, 「농가십이월속시」, 국립민속박물관 편, 같은 책, 235면. "候月豈無著古記, 車滄洲詩近有理. 豊峽薦南稔海, 赤焦卉木白漲水. 惟是圓滿深黃色, 方知馭桀有禩."

98) 최영년, 「해동죽집・명절풍속」, 국립민속박물관 편, 같은 책, 323면. "舊俗, 上元, 望月, 有驗水旱豊荒. 田老尤驗, 甚有餠峯飯峯粥峯之讖. 盖出自歲時記有驗月之說, 名之曰달마지."

경우, 그 빛이 붉으면 가뭄이 들고 희면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있다고 했다. 반면, 누런빛이나 짙은 황색이면 풍년이 든다고 했다고 보았다. 마지막 사례의 경우, 달이 어떤 봉우리에서 뜨느냐에 따라 풍흉을 점치는 경우이다. 즉, 달이 떡 봉에 뜨면 풍년, 죽 봉에 뜨면 흉년, 밥 봉에 뜨면 평년이라는 의미이다.[99]

다음으로, 세시기에 나타난 묘성 보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묘성은 소성(小星), 모두성(旄頭星), 낭위성(郎位星) 등으로도 불린다. 이 묘성은 '좀생이별'을 말하는 것으로 최영년(崔永年, 1856-1935)의 시에 '좀생이'로 표기되어 있다. 묘성 보기 사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옛 풍속에 2월 7일 밤 낭위성(郎位星)을 보아 달 뒤로 한 길쯤 떨어져서 뒤따르면 풍년이 들고, 달 앞에 한 길쯤 앞서서 가면 흉년이 든다고 하니, 이를 '좀생이 본다'라고 부른다.

> 초당 위의 좀생이별 초저녁에 바라보니
> 열은 구름 낀 하늘에 밤빛이 어슴푸레하네.
> 가장 좋은 정조로 느릿느릿 달 뒤를 따르니
> 금년에 큰 풍년 들 것이라 점칠 수 있네.[100]

> [2월] 6일에는 소성(小星)을 보고 그해의 풍흉을 점친다. 소성은 모두성(旄頭星)인데, 세속의 이름이다. 소성이 달과 거리가 가까우면 그해 풍년이 들고, 멀면 그해에 흉년이 든다고 한다.[101]

> 초엿새 뜨는 달은 좀생이와 견주어서
> 앞서가고 뒤에 감에 풍년 흉년 생겨나네.

---

99) 이러한 풍속은 지금도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사례로 부천 원미산 일대의 설화에 의하면, 원미산에는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바로 떡봉, 죽봉, 밥봉이라고 한다. 정월 보름에 이 산봉우리 중에 어디에 달이 뜨는가를 보고 그해 풍흉을 점친다고 한다. 「떡봉 밥봉 죽봉 설화」, 디지털 부천문화대전, http://bucheo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cheon&dataType=01&contents_id=GC01600840(2019.06.29 검색).

100) 최영년, 앞의 책, 329면. "舊俗, 二月七日夜, 看郎位星, 跟月後一丈則豊, 在月前一丈則荒稱之曰, 좀생이본다. 早看春星帶草堂, 綠天雲物夜微茫. 最是漫漫隨月後, 也占今年大豊穰."

101) 조수삼, 「추재집 · 세시기」, 같은 책, 45면. "初六日, 看小星, 占歲. 小星旄頭, 俗名. 距月近, 則云歲登, 遠則歲歉."

진실로 신묘한 징험이 있으나
스무날 밤 개임과 흐름 비교함이 제일이네.[102]

이처럼, 세시기에 나타난 묘성 보기의 내용도 대체로 일치한다. 즉, 달과 묘성의 거리가 가깝고 묘성이 달보다 뒤에 있으면 풍년으로 보았고 반대로 거리가 멀고 묘성이 달을 앞서서 가면 흉년으로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19세기경에 쓰인 권용정(權用正, 1801-?)의 『한양세시기』에 잘 나타나 있다. 다음을 보자.

[2월] 6일 밤에는 묘성이 달의 앞에 있는가 뒤에 있는가를 살펴서 그해의 풍흉을 점친다. 달을 밥이라 하고 묘성을 아이라고 하는데, 아이가 굶주리면 밥을 먹고 싶어 하여 빨리 가고, 배부르면 천천히 가며, 배고프지도 않고 배부르지도 않으면 빨리 가지도 않고 천천히 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달보다 앞에 가면 흉년이 들고 뒤에 가면 풍년이 들며 나란히 가면 평년이다'라고 한다. 이 달이 흰나비보다 더 희면 근심스러운 일이 있을까 걱정한다.[103]

이와 같이 묘성을 어린아이로 보고 달을 밥이라고 보았다. 풍년이 들면 아이가 천천히 갈 것이고 흉년이 들면 서둘러 바삐 갈 것이다. 따라서, 아이인 묘성이 달보다 앞서가면 흉년이 들고 달보다 늦게 천천히 가면 풍년이 들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전술했던 농서나 유서류의 기술과 다른 면이 있다. 특히, 비슷한 시기의 『동국세시기』의 기술과도 상반된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시기 외에 개인들의 문집에서도 일 년 점후의 내용과 함께 천문 예측의 내용이 간혹 실려 있다. 이를 간추려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세양(蘇世讓, 1486-1562)의 『양곡선생집』(1571)에 실린 「시야망월(是夜望月)」에서 달을 보고 풍흉을 점치는 풍속이 소개되어 있다.

상원에 달을 보고 풍흉을 점치니

102) 김형수, 같은 책, 238-239면. "六日辯月與昴星, 後先所以豊歉生. 最是丁寧有神驗, 莫如卄日較陰晴."
103) 권용정, 같은 책, 162-163면. "六日, 夜觀昴星與月前後, 以占年. 曰月爲飯, 昴爲閒兒, 兒飢則欲飯而行疾, 飽則徐, 飢飽均適則不疾不徐. 故前者飢, 後者熟, 並行者中歲云. 是月先白蝴蝶者, 怕有憂."

달의 두터움과 엷음, 높고 낮음, 그리고 이르고 늦음을 보는 것이네.
오늘 밤에 달이 일찍 뜨고 높으며 또한 엷으니
모두들 흉년이라 탄식하나 달빛은 예전과 같네.[104]

위 시에서는 대보름 달보기의 관행이 잘 나타나 있다. 달의 후박(厚薄), 고저(高低), 조만(早晩)에 따라 풍흉을 점치는 것이다. 여기서는 달이 일찍 뜨고 높으며 엷은 것을 흉년의 징조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유만공(1793-1869)의 『세시풍요』(1843)에서 정월 보름의 달보기는 "설날에 흐리고 대보름날 개었으니 올 가을의 풍년을 징험할 수 있네."[105] 정도로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한편, 음력 2월 6일 묘성 보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2월 초엿샛날
눈썹같이 어여쁜 달 비로서 떠오를 때
묘성이 따라가며 귀고리처럼 걸려 있네.
늙은 농부 머리 들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경술년 대풍이 온 나라에 다시 든다네.
(묘성이 달 옆에 있는 모습이 귀고리를 한 것과 같으면 대풍이 든다고 한다.
풍년은 반드시 옛날 경술년을 일컫는다.)[106]

위 시에서 묘성이 달을 따라가며 귀고리처럼 걸렸다는 것은 달과의 거리가 무척 가깝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당시에는 달이 묘성보다 앞서고 거리가 가까우면 풍년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하곤(1677-1724)의 「원석(元夕)」이라는 시의 두 번째 수는 다음과 같다.

분주한 농부들 달 떠오르기 기다리니

104) 소세양, 『양곡선생집』 권6,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조선전기 문집편, 국립민속박물관, 2004, 156면.
105) 유만공, 「세시풍요」, 국립민속박물관 편, 『조선대세시기Ⅱ』, 국립민속박물관, 2005, 59면.
106) 같은 책, 77면.

일 년 중 오늘 밤에 풍년을 점친다네.
작년 봄과 비교하여 조금 나은 듯하니
봉수고개 나무 위로 밝게 떠올라서라네.
(마을사람들은 음력 정월 대보름 밤에 봉수고개에서 달이 떠오르면 그해 농사가 반드시 풍년이 든다고 한다.)[107]

위의 시에서는 전술했던 바와 같이 일정한 위치에 달이 떠오르면 풍년이라고 인식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작품들은 세시기와 마찬가지로 달의 색깔과 높이, 방향, 두께 등으로 풍흉을 점치는 내용들이다.

남쪽 마을 북쪽 마을 늙은 농부들
지팡이 짚고 부축 받으며 길가에 늘어섰네.
오늘밤도 작년같이 달이 높이 솟았으니
골짜기 농사는 다시 큰 풍년이 들겠네.[108]

촌 늙은이 거나하게 술 마신 저녁 무렵
취한 채 높은 곳에 올라 둥근 달 살펴보네.
예전 경험으로 두터움과 얇음 높낮이 살피지만
산골농사가 어찌 들농사의 수월함만 하리오.
(늙은 농부들은 달을 보고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 달이 두터워 보이면 풍년이 들고 얇아 보이면 흉년이 든다고 하며 달이 높이 솟아오르면 산골농사가 잘되고 낮게 떠오르면 들농사가 잘된다고 하는데 종종 맞기도 한다.)[109]

이처럼, 달이 두터우면 풍년이고 얇으면 흉년이라고 보았다. 또한 달이 높이 솟으면 산골농사가 잘되고 낮게 뜨면 들 농사가 잘 된다고 했다. 그런데 달의 두께는 간혹 적당해야 풍년이라는 인식도 있었다. 다음의 작품을 보자.

풀 엮어 만든 횃불 발갛게 타오르고
저물녘 달 맞으며 동쪽 향해 절하네.

107) 이하곤, 「원석(元夕)」, 같은 책, 169면.
108) 이안중, 「상원요(上元謠)」, 같은 책, 189면.
109) 김려, 「상원리곡(上元俚曲)」, 같은 책, 229면.

올해의 달 두텁지도 엷지도 않으니
틀림없이 온 세상에 풍년이 들겠네.[110]

이 외에 황현(1855-1910)의 「상원잡영(上元雜詠)」 중에서 '후월(候月)'이라는 시를 보면, 달이 뜨는 시각에 따라 어떤 작물이 잘 되는지를 점치기도 했다.

남으로 기울면 홍수 북으로 기울면 가뭄
노랗고 윤나며 둥글고 가득 찬 달이 좋네.
일찍 뜨면 밭벼 늦게 뜨면 메벼가 잘되니
농부들은 달을 보고 한 해 농사 점치네.[111]

위의 작품에서는 달이 일찍 뜨면 밭벼가 잘되고 늦게 뜨면 메벼가 잘된다는 예측과 더불어 달이 기우는 방향에 따라 가뭄과 홍수를 점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4. 천문 예측의 비교와 민속과의 관련성

지금까지 농서와 유서류, 세시기와 개인 문집 등에 나타난 천문 예측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헌에 나타난 천문 예측 중에서는 여러 문헌에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몇몇 문헌에서만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달보기와 달그림자로 점치기, 묘성 혹은 삼성보기 등이다. 달보기는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띠지만 달그림자 보기와 묘성보기는 문헌마다 다소 차이점을 보인다. 이렇게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현재까지 세시풍속의 하나로 전승되고 있어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들의 양상을 비교해 보고 지금의 민속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정월 보름밤 달의 모습을 보고 예측을 하는 것은 망월점, 달점 등으로 불리며 지금까지도 민간에서 행해지고 있다. 달점은 달의 색깔, 달의 밝

110) 마성린, 「농제속담(弄題俗談)」, 같은 책, 208면.
111) 황현, 「상원잡영(上元雜詠)」, 같은 책, 283면.

기, 달이 뜨는 시각과 위치 등을 보고 치게 된다. 대체로 달빛이 붉거나 희면 가뭄이나 비가 많이 올 징조로 보고 좋지 않게 여겼다. 달의 둘레가 두터워야 좋고 얇으면 좋지 않게 여겼다. 달은 둥그렇고 짙은 황색이나 누런빛이 나야 풍년이 들 징조로 보았다. 달이 일찍 뜨거나 높게 뜨면 밭농사와 산골농사가 잘된다고 보았고 늦게 뜨거나 낮게 뜨면 논농사와 들농사가 잘된다고 보았다. 또한, 달이 떠오르는 위치에 따라 풍흉을 점치는 풍속은 현재까지 꾸준히 전승되고 있다.

다음으로, 달그림자로 점치는 방법은 각 문헌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 한 길 정도의 장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림자가 7자 정도일 때 풍년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보다 길면 홍수와 같은 수해를 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대로 그보다 그림자가 짧으면 가뭄이 든다고 보았다. 이러한 양상은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를 정리해 보면 〈표 3〉과 같다. 그런데 이러한 달그림자로 점을 치는 관습은 지금은 거의 행해지지 않아 이러한 풍속이 소멸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의문이다.

다음으로, 묘성 보기 즉, 좀생이별 보기는 일단 묘성과 삼성, 이 두 가지 별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 외에도 걸성, 소성, 낭위성 등 각각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문헌에 따라 묘성 혹은 삼성이 달보다 앞서면 풍년이라는 서술과 그 반대로 흉년이 든다는 서술이 상반되게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지역마다 그 기준이 달라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112]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시대적으로 볼 때 19세기를 기점으로 전환되는 양상도 보인다.[113] 19세기 이

112) 민간에서는 음력 초엿새를 '좀생이날'이라고 한다. 좀생이는 지역에 따라 송진이, 송싱이, 조무싱이, 소무생이, 송생이라고도 부른다. 강원도에서는 초승달에 좀생이가 가까이 가면 좋고 너무 멀거나 가까워도 좋지 않다고 여긴다. 경상남도 해안지역에서는 좀생이가 마치 고삐를 끌 듯 달을 끌고 가면 대풍이라고 여긴다. 충북에서도 좀생이별이 달보다 앞서 가면 풍년이라고 여긴다. 전북이나 충남의 경우는 좀생이별이 달의 뒤로 돌아가야 풍년이라고 여긴다.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세시풍속사전』(봄편), 국립민속박물관, 2005, 72~74면.

113) 물론, 18~19세기 이전에도 묘성 보기 혹은 삼성 보기 관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문헌에서 그 이전의 사례를 확인할 수가 없고 다만, 이 연구에서는 18세기 후반의 사례부터 확인이 가능하였다.

전과 초반까지는 묘성(소성)과 달이 가까우면 좋은 것으로 보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순서에 따라 풍흉이 나뉘게 된 것이다. 순서의 기준도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시점, 즉 19세기를 전후하여 어떠한 원인으로 변화하였는가 하는 점은 이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마지막으로 문헌에 나타난 천문 예측의 방법들이 민간에 수용되는 양상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7세기 후반에 편찬된 박세당의 『색경』에서는 몇 가지 천문 예측의 관행을 서술하면서 '언운(諺云)'이라고 한 대목이 있었다. 즉, 해에 귀가 생길 때의 경우, 초승달의 모습을 보고 비와 바람을 예측하는 경우, 별을 보고 날씨가 맑음을 예측하는 경우 등은 민간에서 이미 속언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전술했던 『송남잡지』에 의하면, 이러한 예측 중에 초승달의 모습을 보고 비와 바람을 예측하는 방법은 송나라 때 편찬된 『후청록』의 내용과 일치한다. 두 기사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초승달로 비를 예상한다. 속설에 '달이 활을 걸어놓은 것 같으면 비가 적고 바람이 많으며 달이 암키와 같으면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비가 내린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달이 비스듬히 누워 있으면 물이 많아 넘실넘실하고 달이 옆으로 기울면 물 한 방울도 없다.'고 하였다.[114]

○ 『후청록』에 "달이 매달린 활과 같으면 비가 적고 바람이 많다. 달이 누운 기와 같으면 빌지 않아도 저절로 비가 내린다.[115]

이러한 사례는 당시 천문 예측 방법이나 풍속들이 전대의 문헌들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모든 경우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선의 문헌이나 민속의 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헌들에서 중요한 천문 예측의 내용을 정리하

114) 농촌진흥청 편, 앞의 책, 2001, 228면.
115) 조재삼 저, 앞의 책, 177면.

면 〈표 5〉와 같다.

〈표 3〉 달그림자로 점치기 관행 비교표

문헌 / 예측	증보산림경제(1766)	임원경제지(1827)		송남잡지(1885)	동국세시기(1849)	
	정월 보름, 10자	물리론	군방보	정월 보름, 1길(10자)	동방삭	화력신재
		정월 보름, 2자	정월 보름, 1길(10자)		정월 보름, 한 재[尺]	정월 보름, 한 길
대한(大旱)	1-2자	2자 이하	3자	2자		3-5자
소한(小旱)	3-4자	2자 5치-3자	5자	5자		
차선(次善)	5-6자		6자	6자		
대풍(大豊)	7-8자	3자 5치-4자	7자	7자	6-7치[寸]	6-7재[尺]
작은 홍수		4자 5치-5자	9-10자		4치, 8치	8-9자
대홍수		5자 5치-6자		9자		
대흉(大凶)	9-10자				5치	

〈표 4〉 묘성(삼성) 보기 관행 비교표

문헌 / 예측	조수삼의 세시기(1795)	열양세시기(1819)	임원경제지(1827)	세시풍요(1843)	한양세시기(1801-?)	동국세시기(1849)	송남잡지(1885)	최영년의 시(1856-1935)
	2월 6일, 소성	2월 6일, 묘성	1월 8일, 삼성	2월 6일, 묘성	2월 6일, 묘성	2월, 삼성	2월 6일, 걸성	2월 7일, 낭위성
대한(大旱)			달 → 삼성 (서쪽, 한 길 이상)					
소한(小旱)								
차선(次善)					달=묘성		묘성 → 달	
대풍(大豊)	달=소성 (가까움)	달=묘성 (한 치 이내)	달 → 삼성 (서쪽, 한 길 이내)	묘성→달 (가까움)	묘성→달	달→삼성 (멀리 떨어짐)	달 → 묘성	낭위성→달 (한 길)
수해			삼성(동쪽, 한 길 이내) → 달					
대흉(大凶)	달→소성 or 소성→달 (거리가 멂)	달→묘성 or 묘성→달 (한 치 이상)			달→묘성		묘성=달	달→낭위성 (한 길)

〈표 5〉 조선시대 문헌 중 기상 점후 관련 기사와 천문 예측 유무

문헌명	편제	천문 예측 내용	주요 사항
촬요신서 (1446)	점후문	점청우(占晴雨), 점한서(占寒暑), 점풍겸(占豊歉), 점휴구(占休咎), 잡점(雜占)	은하수 보기
금양잡록 (1492)	재풍변	바람을 보고 기상을 예측	-
고금설원 (1594)	1권, 9권	天地・日月・星辰・陰陽・五行・風雲・雷雨・附曆象災異(이상 1권), 天文(9권)	-
지봉유설 (1614)	천문부, 재이부	천(天), 일월(日月), 성(星), 풍운(風雲), 우설(雨雪), 홍(虹), 뢰(雷), 화(火) 등, 이변에 대한 역사적 기록	-
유원총보 (1643)	천도문	천문 현상, 이변에 대한 역사적 기록	-
신편휘어 (1653)	건도문	천변, 일변, 월변 등 여러 문헌, 역사상 변이에 대한 소개	-
색경 (1676)	전가점험 천문류	점일, 점월, 점성	천문 예측을 언운(諺云)으로 소개, 해에 생긴 귀, 초승달 모양으로 비와 바람 예측, 별을 보고 맑음을 예측
민천집설 (1752)	천문문	점풍우, 점풍흉, 점두(占斗), 점유성(占流星), 점화성(占火星) 등	-
성호사설 (1760)	천지문, 만물문	천문 기상과 천문의 원리 설명	달과 필성 혹은 기성이 만났을 때 비나 바람이 붊
증보산림경제 (1766)	〈증보사시찬요〉 점풍우, 험세(驗歲), 전가점후	정월 삼성 별자리 보기, 상원에 달그림자 측정하기, 논일(論日), 논월(論月), 논성(論星) 등	정월 8일 삼성이 보이지 않으면 보름에 비가 옴. 정월 보름 달그림자 보기(7-8자 대풍), 『색경』의 내용 중복 (해에 생긴 귀, 초승달 모양으로 비와 바람 예측)
고사십이집 (1787)	자집, 축집, 묘집	천문 기상 관련 내용	-
고사신서 (1771)	천도문, 농포문	논일(論日), 논월(論月), 논성(論星) 등	『색경』의 내용 중복 (해에 생긴 귀, 별을 보고 맑음을 예측)
규합총서 (1809)	산가락(山家樂)	밭 갈기 좋은 날, 시골에 날씨 점치기 등 기후 예측 관련 내용	-

열양세시기 (1819)	-	열두 달 세시	2월 6일 묘수 보기(같이 가거나 한 치 이내면 풍년), 8월 노인성 보기
임원경제지 (1827)	위선지 후세(候歲) 편	점천, 점일, 점월, 점성 등	정월 초8일 삼성 보기(삼성이 달에서 서쪽에 한 길 이내가 풍년), 정월 달그림자 재기(7자가 대풍), 일식과 월식, 은하수, 오성 등으로 예측하기
한양세시기 (1801-?)	-	한양의 열두 달 세시	2월 6일 묘성 보기 (달보다 뒤에 가면 풍년, 나란히 가면 평년)
세시풍요 (1843)	-	열두 달 세시	2월 6일 묘성 보기(달을 따라가며 귀고리처럼 가까우면 풍년)
동국세시기 (1849)	-	열두 달 세시	달보기(달이 두터우면 풍년), 정월 보름 달그림자 재기(6-7자면 풍년), 2월 밤 삼성 보기(달보다 앞서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풍년)
오주연문 장전산고 (1856)	천지편 천문류	천문과 기상 관련 내용, 농가의 여러 점후법 소개	『색경』의 내용 중복 (해에 생긴 귀, 초승달의 모습으로 비와 바람 예측)
농정서 (19세기 중반)	농사점후	논일, 논월, 논성	정월 초8일 삼성 보기(보이지 않으면 보름에 흐림), 『색경』의 내용 중복(해에 생긴 귀, 별을 보고 맑음을 예측)
송남잡지 (1885)	천문류, 세시류	천변 등에 대한 역사적 기록, 좀생이별 보기, 정월 대보름 달 그리자 재기 등	『색경』의 내용 중 초승달의 모습으로 예측하기의 전거 제시, 정월 보름 달그림자 재기(7자가 풍년), 2월 6일 밤 걸성 보기 (달보다 앞서가면 풍년, 나란히 가면 흉함)
증보문헌비고 (1908)	상위고	역법, 각종 천변과 성변의 역대 사건들, 각종 기상 재이에 대한 기록	-

5. 결론

이상으로, 농서, 유서류, 세시기, 개인 문집 등 여러 문헌에서 해와 달, 별 등의 천문 현상을 보고 풍흉이나 길흉을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농서에서는 세시기와 문집보다는 상세하게 예측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유서류는 이들의 내용에는 없는 일식과 월식, 세성·북두·삼성 등과 관련된 예측이 실려 있다. 특히, 『임원경제지』「위선지」에는 월별로 점후의 방법과 재해 지역 등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점성(占星)에서는 삼원(三垣)과 28수, 오성과 관련된 재해 예측까지 서술하고 있어 가장 방대한 천문 예측을 서술하고 있다. 세시기와 개인 문집 등에서는 대체로 일치하는 천문 예측의 내용이 실려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에 해와 달, 별과 관련된 천문 예측의 대략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를 보고 예측하는 경우 주로 비와 바람에 대한 것이다. 햇무리가 지면 비가 오고 해에 귀가 생기면 맑거나 흐리게 된다. 해의 남쪽에 귀가 생기면 맑고 북쪽에 귀가 생기면 비가 오면 두 개가 생기면 비가 그친다. 햇무리의 색도 대체로 누르면 좋고 다른 색이면 좋지 않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달을 보고 예측하는 경우, 달빛이 붉으면 가뭄이 들고 희면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있다고 했다. 반면, 누런빛이나 짙은 황색이면 풍년이 든다고 했다고 보았다. 달무리가 있으면 바람이 분다고 했다.

다음으로, 별을 보고 예측하는 경우, 묘성 보기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혼재되어 있다. 즉, 달과 묘성의 거리가 가깝고 묘성이 달보다 뒤에 있으면 풍년으로 보았고 반대로 거리가 멀고 묘성이 달을 앞서서 가면 흉년으로 인식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현재까지 이어져 지역에 따라 좀생이별 보기의 기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 별빛이 불안정하면 대체로 바람이 분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일식과 월식은 대체적으로 모두 좋지 않은 징조로 보았다. 오성들도 계절별로 그 색깔과 밝기가 정상이면 화평하지만 원래의 상태와 다르다거나 오성 중에 두 개 이상의 행성들이 합(合), 수(守), 범(犯), 투(鬪)하면

재해가 있다고 보았다. 그 외 요성, 객성, 유성, 혜성의 경우는 모두 불길한 징조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천문 예측 문헌 기록과 민속과의 관련성을 볼 때, 달점 보기나 좀생이별 보기 등 달이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민속의 상당 부분이 문헌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다. 추후 민속 연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은 유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과거에는 천문 현상을 보고 미래에 대해 다양한 예측을 하였다. 이러한 예측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가 추후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천문 예측이 과연 천문학적으로 실제 의미가 있는 것인지도 검토해 볼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과제로 남겨 놓고자 한다.

▮ 참고문헌

『고사신서』, 『농정본사』, 『면암집』, 『산림경제』, 『색경』, 『성호사설』, 『양곡선생집』, 『오주연문장전산고』, 『임원경제지』, 『천동상위고』, 『촬요신서』, 『추재집』, 『해동죽지』.

국립민속박물관 편, 『조선대세시기 Ⅰ』, 국립민속박물관, 2003.
_____,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조선전기 문집편』, 국립민속박물관, 2004.
_____, 『조선대세시기 Ⅱ』, 국립민속박물관, 2005.
_____, 『조선대세시기 Ⅲ: 경도잡지,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 국립민속박물관, 2007.
권용정, 「한양세시기」, 국립민속박물관 편, 『조선대세시기 Ⅰ』, 국립민속박물관, 2003.
김 려, 「상원리곡(上元俚曲)」, 국립민속박물관 편, 『조선대세시기 Ⅱ』, 국립민속박물관, 2005.
김일권 역주, 『임원경제지 위선지』 1-2권, 소와당, 2011a-b.
김형수, 「농가십이월속시」, 국립민속박물관 편, 『조선대세시기 Ⅰ』, 국립민속박물관, 2003.
농촌진흥청 편, 『고농서국역총서 1: 색경』, 농촌진흥청, 2001.
_____, 『고농서국역총서 3: 농정서』, 농촌진흥청, 2002.
_____, 『고농서국역총서 6: 증보산림경제 Ⅲ』, 농촌진흥청, 2004.
마성린, 「농제속담(弄題俗談)」, 국립민속박물관 편, 『조선대세시기 Ⅱ』, 국립민속박물관, 2005.
민족문화추진회 역, 『신편 국역 산림경제』 1, ㈜한국학술정보, 2007.
유만공, 「세시풍요」, 국립민속박물관 편, 『조선대세시기 Ⅱ』, 국립민속박물관, 2005.
이순지 저, 김수길・윤상철 역, 『천문류초』, 대유학당, 2013.
이안중, 「상원요(上元謠)」, 국립민속박물관 편, 『조선대세시기 Ⅱ』, 국립민속박물관, 2005.
이하곤, 「원석(元夕)」, 국립민속박물관 편, 『조선대세시기 Ⅱ』, 국립민속박물관, 2005.
조재삼 저, 강민구 역, 『교감 국역 송남잡지』, 소명출판, 2008.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농서』 5, 아세아문화사, 1981.
홍석모 저, 정승모 역, 『동국세시기』, 풀빛, 2009.

김광식, 『생활기상과 일기속담』, 향문사, 1979.
김미희 외, 「고농서에 나타난 천기 예측 기술」, 『농업사연구』 제8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2009a, 77-113면.
_____, 「고농서에 나타난 관천망기의 지혜」, 『농업사연구』 제8권 3호, 한국농업사학회, 2009b, 87-109면.
김일권, 「전통시대 기상예측의 자료와 점후론 구조: 임원경제지 위선지 구성을 참조하여」, 『정신문화연구』 제36권 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a, 217-253면.
_____, 「조선시대 기상점후 류서류와 기상자연학적 고찰」, 『중앙사론』 제38집, 중앙대 중앙사학연구소, 2013b, 5-70면.
류상범・이병렬, 「증보 산림경제의 기상학적 지식에 대한 평가」, 『한국농림기상학회지』 제10권 3호, 한국농림기상학회, 2008, 107-112면.
박인호, 「장서각 소장 유서류의 개관과 특성」, 『장서각』 제35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270-294면.

【Abstract】

Prediction of Rich or Poor Harvest and Good or Bad Luck according to Astronomical Phenomenon in Ancient Literature—focusing on predictions through sun, moon, and stars and the correlation with folklore—

Kim, Tae-Woo*

We examined how astronomical phenomena such as sun, moon, and stars are predicted from various literatures such as writings on seasonal customs, personal literatures, agricultural books, and encyclopedic literatures.

First, when looking at the sun predict it, it is mainly about rain and wind. When it is the ring around the sun, it rains, and when the ears are in the sun, it becomes clear or cloudy. If there is ear on the south side of the sun, it becomes clear. If there is ear on the north side of the sun, it becomes rains and if there are two ears, it becomes stop raining. People generally think that the color of the halo of the sun is good if it is yellow and it is not good if the color is different.

Next, if you look at the moon and predict it, the moon is red, and it is said to be drought. And when the moonlight is white, it is said that there is a lot of rain and floods. On the other hand, it was said that if it was yellow or dark yellow, it was good year. When there was the halo of the moon, the wind was broken.

Next, the methods of forecasting of the Pleiades view are relatively mixed. In other words, when the distance between the moon and the Pleiades is close and the Pleiades is behind the moon, it is seen as a good year. On the contrary, there were cases in which they were recognized. This aspect continues until now, and the standards of forecasting of the Pleiades view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region. When starlight was unstable, people generally saw that the wind was mostly blowing.

Next, sun eclipses and lunar eclipses were generally regarded as bad signs. Even if the colors and brightness of the Oseong (五星) are normal, they are peaceful. But when the Oseong are different from their original state, or when two or more planets are

* Assistant Professor, Liberal Arts Institute, Shinhan University.

Hab (合), Su (守), Beom (犯), or Tu (鬪), the disaster occurred. In addition, people are all ominous signs when they see Yoseong (妖星), Gaegseong (客星), Yuseong (流星, meteor), and Hyeseong (彗星, comet).

Finally, when we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astronomical predictive documents and folklore,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that much of the folklore may have originated in the literature. This viewpoint should be kept in mind also in the study of folklore in the future.

Keywords: astronomical prediction, astronomy, sun, moon, star, Pleiades, comet, Samsung, telling fortune climate, astrology.

접수일: 2019.06.30 || 심사일: 2019.07.16 || 게재확정일: 2019.08.16